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라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 요약』 고찰

-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정혜정

락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 요약』 고찰

-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상 진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정 혜 정

정혜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김 덕 수 (인)

부 위 원 장 강 상 진 (인)

위 원 안 재 원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락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 요약』이 그리스도교 초기 박해시기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박해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순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순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술되었음을 밝힌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정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논변을 끌어들여서 박해자들이 정의롭지 않음을 논증하고, 다시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은 정의로우며 동시에 지혜로움을 논증한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는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개념 분류(시민적 정의와 자연적 정의)와 락탄티우스의 논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가르침』 원문을 참조하여 락탄티우스의 논증을 고찰한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지혜롭지만 정의롭지 않거나 정의롭지만 지혜롭지 않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했다.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들여오으로써 정의와 지혜를 통합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정의관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논의에 덧붙인 결론에서 락탄티우스의 목적이 그리스도교인들이 겪는 고난과 순교를 정당화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을 독려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정의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할 참된 제물이다. 또한 정의는 모든 덕을 포괄하는 최고의 덕이며, 정의를 추구하며 삶의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불멸(immortalitas)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 정의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의무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religio)와 인간에 대한 사랑(caritas)이다. 경

외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을 형제로서 알아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innocentia)이며, 그 사랑을 완성하는 단계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애공(misericordia)이다. 『거룩한 가르침』 원문을 참고해보면,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더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해함과 애공의 덕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악덕을 제거해야 한다. 악덕은 인간의 세 가지 주요한 감정인 분노(ira), 물욕(avaritia, cupiditas), 쾌락욕(libido)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경향성으로서, 악덕을 제거하려면 세 가지 감정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쓰고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무해함의 사례로서 제시되는 덕목을 살펴보면 락탄티우스는 십계명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애공의 사례로는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자선 행위(일곱 가지)로 정리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정의에 포함되는 또 다른 덕으로는 믿음(fides)이 있는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정결(castitas)의 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의를 가질 수 없는 인간에게는 회개(paenitentia)와 겸손(humilitas)의 덕이 필요하다.

주요어 : 락탄티우스, 『거룩한 가르침 요약』, 그리스도교, 박해, 정의, 덕, 경외, 사랑

학 번 : 2009-20085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8
1. 생애와 저서, 『거룩한 가르침 요약』	8
가. 생애와 저서	8
나. 『거룩한 가르침 요약』의 필사본, 구조와 내용	11
2. 그리스도교 정의관을 세우는 논변 구조	24
가. 박해자들의 정당화 논변 반박	25
나. 박해자들의 정의관 반박 : 카르네아데스적 논변	29
다. 정의와 지혜의 통합 : 카르네아데스 반박	36
3. 그리스도교 덕으로서의 정의 개념	43
가. 정의의 정의(定義), 정의의 보상	43
나. 인간의 정의 : 하느님에게 바치는 참된 제물	46
다. 정의의 핵심 :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사랑	47
라. 덕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	52
마. 인간에 대한 사랑의 핵심 : 무해함과 애증	55
바. 정의에 포함되는 다른 덕 : 믿음과 정결	58
사.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 : 회개와 겸손	59
III.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7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락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 요약』(*Epitome Divinarum Institutionum*)이 그리스도교 초기 박해시기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박해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순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순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술된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정의 개념을 살피고자 한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은 락탄티우스의 주저인 『거룩한 가르침』(*Divinae Institutiones*)을 저자가 직접 요약한 책이다.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고 이교 철학자들과 문필가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양 없고 부조리한 유설에 이끌린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는 소책자들을 출판하자, 락탄티우스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거룩한 가르침』(*Divinae Institutiones*)을 저술하였다.¹⁾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반박하고 교양 있는 이교인들을 설득하고자 했으며,²⁾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했다. 『거룩한 가르침』은 테르툴리아누스, 미누키우스 펠릭스, 키프리아누스에서 아르노비우스와 락탄티우스로 이어지는 라틴 호교론의

1) 『거룩한 가르침』(5.2-4.1)에서 락탄티우스는 열렬히 그리스도교를 반대했던 두 이교도를 꼽는다. 한 명은 철학자였고 한 명은 재판관이었는데, 락탄티우스에 따르면 이들이 박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철학자는 신플라톤 철학자인 포르피리우스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이견이 있으며, 재판관은 303년에 비티니아의 총독이었던 소시아누스 히에로클레스로 여겨진다. 락탄티우스는 철학자가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세 권을 썼다고 하지만 그의 비판 내용은 전하지 않고 그보다 이 철학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로 재판관의 비판, 곧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가 오만하게 신의 아들로 자처했으며 마술사 이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반박한다. 락탄티우스는 특히 이 두 사람과 대 박해 때문에 『거룩한 가르침』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Bowen, A. & Garnsey, P.(2003), *The Divine Institutes of Lactantiu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3. Bowen & Garnsey는 Barnes의 견해를 따라 포르피리우스가 그리스도교의 반대자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포르피리우스라는 추정에 부정적이다. Bowen & Garnsey(2003), 2의 각주 7 참조.

2) 드롭너 저, 하성수 옮김(2001), 『교부학』, 분도출판사, 274.

계보를 잇고 있다. 이교 신들을 공격한다는 점은 이전의 호교서들과 공통된 점이지만, 그리스도교 사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

락탄티우스에 대한 해외의 연구 성과는 Bryce의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⁴⁾ Bryce의 참고문헌 목록은 편집본들 뿐만 아니라 번역과 주석서 및 2차 문헌을 망라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의 편집본으로는 Heck & Wlosok⁵⁾과 Perrin⁶⁾이 있고, 번역으로는 Perrin의 프랑스어 번역과 Wlosok⁷⁾의 독일어 번역, Blakeney⁸⁾의 영어 번역을 참조할 수 있다. 『거룩한 가르침』의 편집본은 우선 Sources Chrétiennes 시리즈에서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출판되었는데, 1, 2, 4, 5권은 Monat⁹⁾가, 6권은 Ingremeau¹⁰⁾가 편집과 번역작업을 했다. 『거룩한 가르침』 편집본 전체가 출판된 것은 최근의 일로, Bibliotheca Teubneriana 시리즈에서 Heck & Wlosok의 전체 7권 편집본(2005-2011)¹¹⁾이 나와

3) Bowen, A. & Garnsey, P.(2003), 13.

4) Bryce, J.(2019), *Bibliography of Lactantius*. 인터넷 주소는 참고문헌 목록에 실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은 2019년 10월 버전이다.

5) Heck, E. & Wlosok, A.(1994), *Lactantius Epitome Divinarum Institutionum*, Stuttgart & Leipzig: Teubner.

6) Perrin, M.(1987), *Épitomé des Institutions Divines*,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étiennes 335).

7) Wlosok, A.(2001), *Lactantius, Lucius Caecilius Firmianus : Göttliche Unterweisungen in Kurzform*, München und Leipzig : Saur.

8) Blakeney, E. H.(1950), *Lactantius' Epitome of the Divine Institutes*, London: SPCK Publishers.

9) Monat, P.(1986), *Lactance, Institutions divines, Livre I*,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étiennes 326) ; (1987), *Lactance, Institutions divines, Livre II*,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étiennes 337) ; (1992), *Lactance, Institutions divines, Livre IV*,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étiennes 377) ; (1973), *Lactance, Institutions Divines, Livre V, Tome I*,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étiennes 204).

10) Ingremeau, C.(2007), *Institutions Divines, Livre VI*,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étiennes 509).

11) Heck, E. & Wlosok, A.(2005), *L. Caelius Firmianus Lactantius, Divinarum institutionum libri septem, Fasc. 1: Libri I & II*. München & Leipzig,

있다. 번역으로는 Bowen & Garnsey¹²⁾의 영어 번역과 위에서 언급한 Sources Chrétiennes의 프랑스어 번역들이 있다. 락탄티우스에 관한 개설로는 Bowen & Garnsey의 Introduction¹³⁾을 참조할 수 있다. 2010년대에 나온 박사논문으로는 Coleman(2014)¹⁴⁾과 Aubin(2016)¹⁵⁾의 논문이 있다.

락탄티우스의 정의(iustitia) 개념에 관한 연구로는 Loi(1965)¹⁶⁾, (1966)¹⁷⁾, Heck(1978), Buchheit(1979)¹⁸⁾, Piccaluca(1996)¹⁹⁾와 함께 Monat(1973)²⁰⁾, Ingremeau(2002)²¹⁾, (2003)²²⁾ 등을 참조할 수 있

(Bibliotheca scriptorum Graecorum et Romanorum Teubneriana 1265) ; (2007), *Fasc. 2, Libri III & IV*, Berlin and New York ; (2009), *Fasc. 3, Libri V & VI*. Berlin & New York ; (2011), *Fasc. 4, Liber VII*, Appendix, Indices. Berlin & Boston, Massachusetts.

12) Bowen & Garnsey(2003).

13) Bowen & Garnsey(2003), 1-54.

14) Coleman, A. P.(2014), "Lactantius and the Doctrine of Providence", Boston College Ph.D. dissertation.

15) Aubin, J.(2016), "La notion de *religio* dans le *De ira Dei* de Lactance : la Providence et la crainte de Dieu au fondement de la religion comme réponse à la philosophie épicurienne source des hérésies", Université Laval Ph.D. dissertation.

16) Loi, V.(1965), "I valori etici e politici della Romanità negli scritti di Lattanzio", *Salesianum* 27, 65-132.

17) Loi, V.(1966), "Il concetto di "iustitia" e i fattori culturali dell'etica di Lattanzio", *Salesianum* 28, 583-625.

18) Buchheit(1979), "Die Definition der Gerechtigkeit bei Laktanz und seinen Vorgängern", *Vigiliæ Christianæ* 33, 356-374.

19) Piccaluga, G.(1996), "Ius e Vera Iustitia (Lact.Div.Inst.VI 9.7). Rielaborazione cristiana di un valore assoluto della religione romana arcaica", *L'Etica cristiana dei secoli III e IV: eredità e confronti: Studia Ephemeridis Augustinianum* 53, 257-69. 이상의 연구 목록은 Garnsey(2002), 169의 각주 63을 참조했다.

20) Monat, P.(1973), 58-63.

21) Ingremeau, C.(2002), "Lactance et la justice dans le livre V des *Institutions divines*", in Madeleine Piot, ed., *Regards sur le monde antique: hommages à Guy Sabbah*, Lyon, 153-162.

22) Ingremeau, C.(2003), "Lactance et la Justice : du livre V au livre VI des *Institutions Divines*", in Jean-Yves Guillaumin & Stéphane Ratti edd., *Autour de Lactance : hommages à Pierre Monat*, Besançon : Institut des Sciences et Techniques de l'Antiquité, 43-52.

다. Loi는 락탄티우스가 정의(iustitia)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배의 덕’이라는 의미 외에도, 신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리스도교 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 자체를 뜻하거나, 때로는 misericordia와 humanitas의 의미로 쓰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²³⁾ Heck는 『거룩한 가르침』 5.16.12-13에 있는 『국가론』(De Re Publica)의 라일리우스 논변에 대한 락탄티우스의 평가에 주목하였다.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시민적 정의(iustitia civilis)와 자연적 정의(iustitia naturalis)로 나누었고, 키케로는 라일리우스를 내세워 정의를 옹호하려 했지만, 어리석다는 혐의를 받은 자연적 정의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정의를 변호하는 데 그쳤다는 내용이다. Heck는 가이우스의 『법학제요』(Institutiones)에 나타나는 ius civile와 ius gentium, ius naturale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적 정의란 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정의(로마인들이 인정하는 정의)를 뜻하고, 자연적 정의란 어디에서나 유효한 자연법(ius naturale)의 실현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Heck에 따르면 락탄티우스의 비판의 요지는 키케로가 단지 로마인들의 시민법이 로마인들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정당화했을 뿐이고, 로마인들이 세운 법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효한 자연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Ingremeau(2003)는 『거룩한 가르침』의 5권과 6권에 나타난 정의 개념을 시민적 정의(iustitia civilis), 참된 법(vera lex), 참된 정의(vera iustitia), 정의와 경건함(iustitia et pietas), 정의와 동등함(iustitia et aequitas)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거룩한 가르침』 5권은 「정의」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 내용은 락탄티우스의 정의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고, 5권은 이교도인 박해자들과 철학자들이 참된 정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참된 정의는 「참된 승배」라는 제목이 붙은 6권에서 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Ingremeau는 1권이 「거짓 종교」, 3권이 「거짓 지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처럼, 5권은 사실상 「거짓 정의」(De falsa iustitia)라고

23) Monat(1973), 59에서 재인용.

제목을 붙일 수 있으며, 6권은 「참된 정의이자 참된 숭배」(De vera iustitia et vero cultu)라고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Garnsey(2002)²⁴⁾는 락탄티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미친 영향을 찾아봄에 있어서 두 교부의 텍스트만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심사를 비교해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교 권위자들의 이용, 종교와 지혜, 최고선, 덕 등 주로 윤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철학의 사추덕(지혜, 정의, 용기, 절제)을 그리스도교 교리와 긴밀하게 연관 지으며 재정하였는데, 정의를 포함한 덕이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arnsey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이미 락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락탄티우스는 『거룩한 가르침』에서 정의의 핵심 의무가 경건함(pietas)과 동등함(aequitas)이며 그 중에서도 경건함이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5.14).

국내에서 락탄티우스와 그의 저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교부학 입문서인 한국교부학연구회의 『내가 사랑한 교부들』²⁵⁾은 북아프리카 교부로서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야누스, 밀레비스의 유타투스를 다루고 있지만 락탄티우스는 빠져있다. 교부학 개론서인 드롭너의 『교부학』에는 락탄티우스의 생애와 저서,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찾아볼 수 있다.²⁶⁾ 아직까지 락탄티우스의 저서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없다. 연구논문의 경우 몇 편이 발표되어 있는데, 황성환²⁷⁾은 주로 개론서들을 참고하여 락탄티우스의 생애와 작품을 개관하였고, 공성철²⁸⁾은 『박해자

24) Garnsey, P.(2002), "Lactantius and Augustine", in A.K. Bowman, H.M. Cotton, M. Goodman and S. Price ed., *Representations of Empire: Rome and the Mediterranean World*, OUP/British Academy, 153-179.

25) 한국교부학연구회(2005), 『내가 사랑한 교부들』, 분도출판사.

26)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가르침 요약』은 각각 『종교적 제도집』과 『종교적 제도집의 개요』로 번역되었다. 드롭너(2001), 273-275.

27) 황성환(2002), 「전환기적 시대의 라틴교부 락탄티우스」, 성결교회와 역사 4 : 289-309쪽.

28) 공성철(2013), 「락탄티우스(Lactantius)의 교회사 『박해자들의 죽음들』」,

들의 죽음들』(*De mortibus persecutorum*)을 연구한 두 편의 논문에서 특히 에우세비오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을 높이지 않으며 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독특한 교회사로서의 성격을 드러냈다. 그 외의 논문들은 락탄티우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나 그리스도교의 천년왕국설 등의 주제를 논하며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은 저자 자신이 전체 7권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르침』을 직접 한 권으로 압축하고, 그리스어로 쓰였던 인용문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논증과 표현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보강하여 읽기 쉽게 개작한 작품으로서, 『거룩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락탄티우스와 『거룩한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해외 연구에서도 『거룩한 가르침 요약』 자체에 대한 연구는 편집본들 이외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 락탄티우스는 지혜와 정의를 통합하는 그리스도교적 정의관을 제시하면서 순교를 정당화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을 독려하고자 하였는데, 저서의 목표로서 이 점은 간과되고 있다.

본론 2장에서는 락탄티우스의 생애와 저서들, 그리고 『거룩한 가르침 요약』의 필사본과 구조 및 내용을 정리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논증을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정의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락탄티우스가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논의를 이용하여 박해자들의 정의관을 반박하고 다시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이 정의로우며 지혜롭다고 논증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서 정의와 지혜가 통합되는 그리스도교적 정의관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룩한 가르침』 5권에서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

장신논단 45호 (2013): 37-62쪽 ; (2013),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죽음들』이 보여주는 신정론(Theodicy) 역사에서의 의미」, 신학과 문화 22호 :121-151쪽.

스를 대변인 삼아서 실정법이 공동체와 개인들의 이기적인 이해 속에서 제정되고 강제됨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하여 자연법이 정의로울 뿐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²⁹⁾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 이 내용은 47-52에 매우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분류와 해석 및 논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거룩한 가르침』 원문을 참조할 것이다. 또한 이 논의의 결론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목적이 그리스도교인들의 순교를 정당화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독려하는 데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덕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고찰한다. 이 내용은 『거룩한 가르침』 3권 요약의 일부인 28-30과 6권 요약 전체에 해당하는 53-62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정의의 두 가지 핵심인 하느님에 대한 경외(religio)와 인간에 대한 사랑(caritas)을 정의(定義)하고 정의의 보상을 불멸(immortalitas)로 제시하는 논변을 정리할 것이다. 이후는 53-62a에 나타난 순서대로, 참된 제물로서의 정의(iustitia),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내용 및 우선순위,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핵심 덕인 무해함(innocentia)와 애금(哀矜, misericordia), 덕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로서 인간의 세 가지 감정(adfectus)을 옹기 사용 하는 방법, 무해함과 애금의 구체적인 내용, 정의에 포함되는 다른 중요한 덕으로서 믿음(fides)과 정결(castitas),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 지녀야 할 덕으로서 회개(paenitentia)와 겸손(humilitas) 개념을 살펴보겠다.

29) Bowen & Garnsey(2003), 53.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는 여러 칙령이 반포되고 정치인들과 재판관들이 반그리스도교 정책을 편 것이 라탄티우스가 실정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월함을 논증하게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같은 쪽.

II. 본론

1. 생애와 저서, 『거룩한 가르침 요약』

가. 생애와 저서³⁰⁾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피르미아누스 락탄티우스(L. Caecilius Firmianus Lactantius, 250년경-325년경) 아프리카 출신의 수사학자이며 그리스도교 호교론자였다. 히에로니무스는 그가 수사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다고 말하며, 그를 “키케로 웅변술의 강물(fluvius eloquentiae Tullianae)”이라고 불렀다.³¹⁾ 락탄티우스는 뛰어난 고전적 문체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 큰 인기를 누렸다. 그의 대표 저서인 『거룩한 가르침』(*Divinae Institutiones*)은 150개 이상의 필사본이 남아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³²⁾ 1573년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락탄티우스를 “그리스도교의 키케로”³³⁾라고 불렀다. 또한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교가 극심한 박해를 겪다가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 지위로 뒤바뀌었던, 종교적 격변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박해를 직접 목격한 인물로서 그의 저서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며, 철학적, 윤리적, 문학적 연구의 대

30) Aubin(2016), 70-71 ; Coleman(2014), 1-8 ; Bryce(1990), 1-2 ; Ogilvie, R.M.(1978), *The Library of Lactanti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 ; Garnsey(2002), 156~157 ; 드롭너 저, 하성수 옮김(2001), 272-276 ; 공성철(2013), 「락탄티우스의 교회사 『박해자들의 죽음들』 - 그리스도인 락탄티우스의 신관이 만든 사상과 그 배경 연구」, 39 참조.

31) Hieronymus, *Epistola* 68.10 (CSEL 27/1, 164): Lactantius, quasi quidam fluvius eloquentiae Tullianae, utinam tam [doctrina] nostra affirmare potuisset quam facile aliena destruxit! Coleman(2014), 2의 각주 7에서 재인용.

32) Garnsey(2002), 157.

33) Pico della Mirandola, *De studio divinae atque humanae philosophiae*, 1.7. Coleman(2014), 1, 각주 5에서 재인용.

상이 되고 있다.

락탄티우스의 생애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진 내용은 주로 히에로니무스의 보고³⁴⁾에 의존한다.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락탄티우스는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수사학자였으며 훗날 개종하여 그리스도교 호교론(*Adversus nationes*³⁵⁾)을 썼던 아르노비우스의 학생이었다. 그가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교 호교론가들인 테르툴리아누스, 미누키우스 펠릭스, 키프리아누스의 저작들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점, 또 북아프리카의 도시 Cirta에 ‘L. Caecilius Firmianus’라는 비문이 있다는 점이 아프리카 태생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다. 수사학자로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락탄티우스는 290년-300년 사이에 문법학자 플라비우스와 함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초청을 받아 황제의 새 관저가 있던 비티니아 지방의 니코메디아로 와서 라틴 수사학 교수로서 활동했다. 락탄티우스의 학생들 중에는 후에 황제가 되는 콘스탄티누스도 있었다.

락탄티우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34) Hieronymus, *De viris illustribus* 80 : Firmianus, qui et Lactantius, Arnobii discipulus, sub Diocletiano pricipie accitus cum Flavio grammatico, cujus De medicinalibus versu compositi exstant libri, Nicomediae rhetoricam docuit ac penuria discipulorum ob Graecam videlicet civitatem ad scribendum se contulit. Habemus ejus Symposium, quod adolescentulus scripsit Africae, et Ὀδοπορικὸν de Africa usque Nicomediam, hexametris scriptum versibus, et alium librum, qui inscribitur Grammaticus, et pucherrimum De ira Dei et Institutionum divinarum adversum gentes libros septem, et ἐπιτομὴν ejusdem operis, in libro uno ἀκεφάλῳ, et Ad Asclepiadem libros duos, De persecutione librum unum, Ad Probum epistolarum libros quattuor, Ad Severum epistolarum libros duos; Ad Demetrianum, auditorem suum, epistolarum libros duos et ad eumdem De opificio Dei vel formatione hominis librum unum. Hic extrema senectute magister Caesaris Crispi, filii Constantini, in Gallia fuit, qui postea a patre interfectus est. Coleman(2014), 7의 각주 13에서 재인용.

35) 편집본은 Le Bonniec, H., Champeaux, J., Fragu, B.(1982), *Contre Les Gentils / Arnobe*, Paris : Les Belles Lettres 참조.

있지 않다. 하지만 303년 2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였기 때문에 관직을 사임했고, 따라서 개종 시기는 303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시기에 궁핍하게 살았고, 학생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했다고 히에로니무스는 전한다. 이 시기에 락탄티우스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313년에 박해가 끝난 뒤, 락탄티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장남인 크리스푸스의 스승으로 초빙되어 트리어로 갔고, 325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저작으로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쓴 『향연』(*Symposium*)과 아프리카에서 니코메디아까지 했던 여행에 관하여 쓴 육각운을 시, 『문법학자』(*Grammaticus*)라는 논문, 아스클레피아데스에게 쓴 책 두 권, 프로부스에게 쓴 서신 네 권, 세베루스에게 쓴 서신 두 권, 자신의 학생이었던 데메트리아스에게 쓴 서신 두 권이 있다. 현존하는 저작 중에서 첫 번째 저작은 『하느님의 작품』(*De opificio Dei*, 303-4년, 데메트리아누스에게 헌정)이며 그리스도교 변론을 위한 소논문이다. 『불사조』(*De ave Phoenice*, 303년-311년)와 함께 두 저작은 그가 그리스도교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쓴 것이다. 대표 저서인 『거룩한 가르침』은 전체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호교서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교양 있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그리스도교의 교의와 윤리를 밝히고자 했다. 키케로 문체를 모방하였고, 여러 다양한 고전 작가들의 글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가르침』의 초판은 304년부터 311년 사이에, 2판은 324년경 집필된 것으로 여겨진다. 2판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향한 연설이 추가되어 있고, 단어와 문장들이 이원론적인 점이 특징적이다.

크리스푸스의 스승으로 초빙되어 트리어에 간 이후에 쓴 저술로는 『박해자들의 죽음』(*De mortibus persecutorum*, 316년 이전)과, 『하느

님의 진노』(*De ira Dei*, 315년경), 그리고 『거룩한 가르침 요약』이 있는데, 『거룩한 가르침』의 1판과 2판 사이인 313-321년경 쓴 것으로 추정된다.

나. 『거룩한 가르침 요약』의 필사본, 구조와 내용

1) 필사본³⁶⁾

3개의 필사본이 남아있다.³⁷⁾ 텍스트 전체가 남아있는 사본 1개와, 후반 부분을 수록한 사본 2개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만을 수록하고 있는 두 개의 사본이 51장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 사본은 51부터 61.6까지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의 논변의 핵심을 다루는 부분이다 : 카르네아데스 정의 논변을 끌어와서 박해자들의 박해 정당화를 반박하는 부분부터 정의에 포함되는 믿음(*fides*)의 덕 중에서도 신에 대한 믿음까지이기 때문이다. 락탄티우스 이후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이교 논박, 철학 논박이나 그리스도교의 진리 증명보다 그리스도교 윤리에 관심을 가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구조와 내용

『거룩한 가르침 요약』은 서문과 본론(1-67), 결론(68)로 구성되어 있다. 이교와 철학자들을 논박한 다음, 참된 종교이며 지혜로서 그리스도

36) Perrin(1987), introduction 37-38과 Heck & Wlosok(1994), praefatio 25-27를 참조.

37) T사본 : Taurinensis tabularii publici(토리노주 고문서고) IB. II. 27. f.2^{r75}-f.61^v. 텍스트 전체가 남아있다. 6-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필사되었다. 1711년 Maffei와 Pfaff가 발견하였고, 첫 에디션은 1712년 파리에서 간행되었다. B사본 : Bononiensis, Bibl. uniu.(Bologna, Biblioteca Universitari 불로냐 대학 도서관) 701, f.270^v-282^r. 51-68을 수록했다. 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필사되었다. P사본 : Parisinus BN(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파리국립도서관) lat.1662. f.191^r-195^r. 51-61.6 omnibus vitae까지 수록했다. 9세기에 프랑스 Corbie 수도원에서 필사되었다.

교 교리를 밝히고, 그리스도교인의 윤리를 제시하고, 종말론으로 끝맺는다. 본론에서는 『거룩한 가르침』의 전체 1-7권을 순서대로 요약하고 있다. 1권과 2권의 요약에서는 이교를 공격한다. 1권 「거짓 종교」(De falsa religione) 요약(1-19)에서는 신의 유일함을 논증하고 수많은 이교의 신들은 신격화된 인간들일 뿐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2권 「오류의 기원」(De origine erroris) 요약(20-25.1)에서는 인간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된 역사에 주목해서, 하늘을 보도록 똑바로 서는 인간이 어떻게 땅의 것들로 만들어진 신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3권 「거짓 지혜」(De falsa sapientia)의 요약(25.2-35)에서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로 여기는 철학자들을 논박하고, 4권 「참된 지혜이며 종교」(De vera sapientia et³⁸⁾ religione) 요약(36-47.1)에서는 참된 지혜이며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5권 「정의」(De iustitia)의 요약(47-52)과 6권 「참된 숭배」(De vero cultu) 요약(53-62a)은 정의(iustitia)와 여러 가지 덕을 정의(定義)하고 그리스도교인이 지녀야 할 윤리 원칙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7권 「복된 삶」(De beata vita) 요약(62b-67)에서는 종말론을 펼치며 정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기다리는 상급을 설명한다.³⁹⁾ 각 부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서문 : 『거룩한 가르침 요약』 저술의 동기와 방법. 『거룩한 가르침』 전체 7권을 한 권으로 요약하는 이유는 펜타디우스 형제가 요약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많은 논변과 사례를 삭제하되 내용의 풍부함과 명확함이 부족하지 않게 요약할 것이다.

38) 여기서 et는 id est(즉)의 뜻이다. Wlosok(1960), *Laktanz und die philosophische Gnosis*, Heidelberg, 212-215. Ingremeau(2003), 52, 각주 54에서 재인용.

39) Bowen & Garnsey(2003), 7. Bowen & Garnsey는 1권·2권, 3권·4권, 5권·6권을 각각 한 쌍으로 설명한다. Ingremeau는 1권과 6권이 제목에 있어서 대응된다고 보았다. Ingremeau(2003), 51 각주 53 참조.

40) 형식과 내용 일부는 Perrin(1987), 17-20을 참조.

1권 「거짓 종교」(De falsa religione) 요약 : 이교 비판(1-19)

(1) 섭리의 존재 논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섭리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피쿠로스 학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세상의 제작자(artifex)이며 주재자(rector)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의 아름다움, 조화로움, 인간과 다른 생물들의 편리함에 알맞음 때문이다. 이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성 없이 시작되었을 수 없다. (2) 신의 유일함 논변. 이성에 따르면 세상의 창조자와 주재자로서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된다.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만물의 총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상을 만든 자(conditor)가 통치자(moderator)가 아니라면 세상은 흩어졌거나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재자가 여럿이고 각각의 권한이 나뉘어 있다면 신은 '전능한 자'(omnipotens)일 수 없다. 신은 하나이며 완전하고 손상을 입지 않으며 다른 사물이나 힘에 예속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린다. 인간은 신을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 (3) 유일신에 대한 시인들의 증언. 오르페우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을 만든 '태초의 신'을 언급했고, 베르길리우스는 최고신을 '영'(spiritus)이나 '정신'(mens)으로 부르고 온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을 움직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다. 오비디우스는 만물의 제작자와 세상을 지은 자라고 신을 불렀다. (4) 철학자들의 증언. 플라톤은 유일신의 1인 지배(monarchia)를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정신(una mens)이 있다고 공언했다. 피타고라스, 아낙시메네스, 스토아 철학자들, 세네카와 키케로는 모두 유일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도 특별한 이름이 없는 유일신이 주인이고 아버지이며, 불완전하고 가시적 세계에 사는 인간이 완전하고 비가시적 신을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5) 예언가들의 증언. 바로에 따르면 10명의 시빌라가 있었다(페르시아, 리비아, 델피, 키메리아, 에뤼트룸, 사모스, 쿠마이, 헬레스폰투스, 프뤼기아, 티부르의 시빌라들). 이들 중 예언을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쿠마이 시빌라를 제외한 모든 시빌라들이 신이 하나(unum deum esse)이

며 태초의 설립자인 어버이(princeps conditor parens)라고 증언한다. (6) 이교 신들을 인간의 신격화로 설명. 성과 육체의 결합은 신이 인간에게 종족을 보존하도록 준 것이기 때문에 성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이교 신들은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적이 큰 인간들이 사후에 신처럼 기려진 것으로 설명된다. (7) 신화 속 ‘신들’의 생애와 비윤리적인 행적은 그들이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헤라클레스는 활동시기 추정이 가능하고, 간통을 통한 출생, 남녀 모두에 대한 성욕에 몰두했다는 점, 오팔레에게 패배하여 여자처럼 살았다는 점, 광기에 사로잡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스스로 화장했다는 점 등은 헤라클레스가 인간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8) 아이스쿨라피우스는 출생과 양육과 교육,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아폴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 비천한 일을 했고 사랑하는 소년을 죽이기도 했다. 마르스, 카스토르와 폴룩스도 간통을 했다. 메르큐리우스도 불륜을 저질렀고, 리베르는 테세우스에게 버려진 아리아드네와 결혼했고, 키벨레는 과부로서 젊은 아티스를 애인으로 두었다. (9) 케레스, 레토, 베누스, 미네르바, 디아나는 모두 정숙하지 못했다. (10) 유피테르는 경건하지 못하고, 절제가 없는 자였다. 테티스의 아들을 두려워했다는 점은 그가 ‘옵티무스 막시무스’(Optimus Maximus,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의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11) 시인들이 신들의 행적처럼 묘사한 내용은 시적 허용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황금비는 금화, 강철비는 창, 독수리는 군대라고 설명할 수 있다. (12) 유피테르, 플루토, 넵투누스가 차지한 하늘, 지하, 바다세계는 올림푸스 산 혹은 동방, 서방, 바닷가와 섬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3) 역사기록을 통한 인간의 신격화 증명. 에우헤메루스가 조사하여 남긴 기록은 유피테르의 가계와 행적과 죽음에 대해 알려준다. (14) 헤르메스와 에우헤메루스의 기록을 통해 사투르누스와 우라누스의 통치권 확립에 대해 알 수 있다. (15) 로마 신들도 역사적 연원이 있다. 신으로 섬겨지는 라렌티아, 파올라, 플로라는 창녀들이었고, 대머리 베누스(Venus Calva)와 빵을 만드는 유피테르(Pistor Iupiter)는 전쟁의 승리 후에 신으로 세워졌고, 클로아키나 신, 공포(Pavor), 창백함(Pallor), 명

예(Honor), 용맹(Virtus)도 누군가가 신으로 만들었다. (16) 원로원은 희망(Spes), 신의(Fides), 화합(Concordia), 평화(Pax), 순결(Pudicitia), 경건(Pietas)과 같은 덕을 신으로 만들었다. 곡물병충해(Robigo), 아궁이(Fornax), 거름(Stercus), 표지석(Terminus) 등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17) 신들의 숭배를 라티움과 로마에 처음 들여온 이들은 각기 파우누스와 누마였다. (18) 이교 신들의 의례(ritus), 숭배(cultus)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종류의 것이거나, 신화 속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에 불과한 어리석은 것들이다. 이시스, 케레스 등의 예. (19) 디뒤무스와 에우헤메루스에 따르면 멜리세우스나 유피테르가 신들의 숭배를 만들었다. 신들의 숭배가 시작된 시점은 1800년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권 「오류의 기원」(De origine erroris)의 요약 : 이교의 기원 (20-25.1)⁴¹⁾

(20) 사투르누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인간은 유일신을 섬겼다. 신들이 ‘황금시대’라고 부른 시기는 이 때이다. 하지만 이교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신에 대한 앎을 잃어버렸고, 인간 사회를 묶는 연대가 끊어졌다. 이후에 인간 사회에는 불화와 약탈과 정복이 일어났다. 이 시기가 ‘철의 시대’이다. 나무와 돌과 같이 땅에서 나온 물질들로 만든 상들에는 신성이 없고 이러한 상들을 섬기는 이들은 어리석다. 그리스의 신상들을 파괴한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우스가 신들의 복수를 당하지 않았음이 이를 증명한다. (21) 하늘과 태양과 달과 같은 세계의 구성체들은 신이 아니라 신의 피조물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건설자의 작업에 의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신이 만든 것들의 움직임과 밝음과 확고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면 그것들을 만든 제작자가 그들보다 더 아름답고 능력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22) 점술, 꿈, 신탁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다

41) Perrin은 24까지를 2권 요약으로 보았다.

이몬들의 존재로 설명한다. 신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불멸이었으나, 인간의 불멸을 시기한 뱀의 유혹에 빠져 신의 명령을 어겼고, 필멸하는 존재가 되었다. 뱀, 곧 악마는 인간을 따라다니며 악행을 부추겼고 신은 악마를 막기 위해 천사를 보냈지만 천사들은 타락하여 악마의 하수인이 되었다. (23) 이들이 다이몬이다. 시인들과 소크라테스도 다이몬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 다이몬들은 인간들이 참된 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들에 대한 숭배, 인간을 신성시하는 것을 가르쳤고, 각종 점술, 혼령술, 예언과 신탁을 만들었다. (24) 신이 다이몬들의 존재와 그들의 우두머리의 존재를 허락한 이유는 악이 없다면 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의가 아니면 정의를 지각할 수 없고 비겁함과 대비하지 않으면 용기를 이해할 수 없듯이 악이 없다면 선도 인식할 수 없다. 신이 악을 허용한 이유는 인간이 악을 통해 선을 얻는 덕행의 전투를 함으로써 불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5.1) 이교의 오류 정리. 이교 신들은 신격화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교신들 숭배는 경건하지 않고 헛되다. 신상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감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교를 보호하는 다이몬들은 오염되고 불결한 존재들로서 참된 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3권 「거짓 지혜」(De falsa sapientia)의 요약 : 철학과 철학자들 비판(25.2-35)

(25.2-7) 철학자들은 신과 신에 대한 앎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철학에 대한 논박.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 또는 공부이지 지혜가 아니다. (26) 철학에 속하는 앎(scientia)와 견해(opinatio)가 제거되면 철학은 무너진다. 철학은 신들과 인간들의 일에 관한 앎이다. 인간은 인간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신의 일은 알 수 없다. 인간은 신적이거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신의 일을 알 수 없다. 신에게서 직접 배우거나 신이 가르쳐준 인간에게서 배우야 한다. 철학자들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

에, 철학자들은 신의 일과 인간의 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따라서 얹이 제거된다. 견해란 모르는 일에 관한 견해이기 때문에 현자에게 어울리지 않다. 따라서 견해도 철학에서 제거된다. (27) 철학은 수많은 학파로 갈라져있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 아카데미 학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철학을 무너뜨렸다. 자연철학뿐만이 아니라 도덕철학도 서로 상치된다. (28) 도덕철학자들은 최고선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최고선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속하고,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게 속하고, 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기준에 맞는 답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29) 최고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락탄티우스의 논변. 키케로의 말처럼 인간은 정의를 위해 태어났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짐승들이 같은 종을 아끼는 것보다 더 같은 인간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또한 오직 인간만이 신을 알기 위한 지혜를 받았다. 따라서 정의는 신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각각 경외(religio)와 사랑(caritas)이다. 전자는 지혜와 관련되고 후자는 덕과 관련되며 정의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정의라는 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악에 속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이는 인간을 해하지 않고 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가난과 모욕과 고문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30) 정의로운 이가 받는 덕의 보상은 내세에서의 불멸이다. 행복은 오직 부패되지 않는 것에 있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부패되지 않는다. 철학자들도 인간의 행복한 삶이란 불멸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불멸이 최고선이다. 불멸만이 인간에게도 영혼에게도 덕에게도 관계된다. 신은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획득하도록 덕과 정의를 제시한다. 논리철학(logica)은 행복한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자연철학(physica), 논리철학이 쓸모없고 도덕철학(ethica)에서도 철학자들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철학은 헛되고 쓸모없다. (31) 철학자들 비판. 에피쿠로스학파의 주장 즉 섭리가 존재하지 않고, 신들이 존재하지만 돌보지 않고, 영혼은 소멸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섭리와 신의 돌봄이 없다면 신도 없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영혼 윤회설은 본인만이 그걸 기억한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하다. (32)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인간과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아이스쿨라피우스에게 제물을 바쳐달라고 하는 등 모순적인 말을 했다. (33) 플라톤은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배우자를 공유한다면 자제심이나 정숙, 배우자간의 사랑이 없어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충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토아학파의 제논은 애공(misericordia)을 영혼이 병이라고 부르고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틀렸다. 이 감정은 인간이 서로를 도와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하도록 인간에게만 주어진 감정이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34) 크세노파네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투스, 디오게네스, 아리스티푸스 비판. 신의 법과 규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이들도 비판의 대상이다. (35)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란 없다. 따라서 오직 신이 계시하고 전해준 신적인 지혜를 따라야 한다.

4권 「참된 지혜이며 종교」(De vera sapientia et religione)의 요약 : 그리스도교(36-47.142)

(36) 거짓 종교와 거짓 지혜를 논박했으므로 참된 종교와 지혜를 논해야 한다. 하느님⁴³⁾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재자이시고, 사람을 자신의 모습대로 지으셨고,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으며, 주신 목적은 인간이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고, 이러한 경건과 순종을 통해 불멸이라는 보상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참되고 신적인 진리이고 종교이며 지혜이다. (37)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신적이고 영원한 자신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아들을 낳았다. 그는 덕이고, 이성이고, 하느님의 말씀이고, 지

42) Perrin은 46까지, Heck & Wlosok은 47.1까지를 4권 요약으로 보았다.

43) 락탄티우스는 이교의 신과 그리스도교의 신을 모두 'deus'라고 칭한다. 이하에서 이교의 신을 뜻할 때는 '신'으로 번역하고, 명백히 그리스도교의 유일신을 뜻할 때는 '하느님'으로 번역하겠다.

해다. 인간들은 그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이고, 세상의 종
 말에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이다.
 (38) 인간들이 그를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신들에 대한 숭배가 세상에 만연할 때 히브
 리인들에게만 신의 종교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점차 이방의 신
 들을 받아들였다. 하느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예
 언자들은 죽음을 당했다.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민족들
 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도록 했다. 예수가 두 번 태어난 이유는 덕과
 인내를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였다.
 (39) 성경에 나타난 성자⁴⁴⁾ 강생의 예언들. (40) 예수 그리스도는 덕과
 기적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41) 성경에 나
 타난 성자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 (42)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날 부활했고, 성경에는 역시 부활에 관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다. 그분
 은 복음 선포를 명하고, 부활한 지 50일째 되던 날 성부(pater)에게 되
 돌아갔다. (43) 그분은 지금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고 심판의 날
 을 기다리고 계신다. 유대인들은 상속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회개하
 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이 없다. 이러한 내용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
 다. (44) 인간에게 있는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바의 참된 종교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뿐이다. 그를 모르는 자는 하느님과 진리를 모
 르는 자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고 예배받기를 원하셨
 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두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이며 성부
 와 성자에게는 하나의 경배가 돌려져야 한다. (45) 하느님께서 필멸하
 는 육체를 입고 모욕을 견디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은 하느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반박에 대한 대답. 성자는 덕의 스승으로서
 인간에게 보내어졌다. 가르침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자는 인간이 되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했다. (46) 십자
 가상의 죽음이 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치욕적인 죽음이었다는 반박에 대

44) 이하에서 ‘성자’는 ‘filius’의 번역이며 ‘성부’는 ‘pater’의 번역이다.

한 대답. 십자가의 신비. 1) 가장 미친한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성자는 가장 미친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2) 부활하기 위해서는 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어야 했다. 3) 실제로서도 상징적으로서도 성자의 위대함과 덕이 알려지도록 성자는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져야 했다.

5권 「정의」(De iustitia)의 요약 : 박해자들의 정의관 반박과 그리스도교 정의관 제시(4745)-5246)

(47) 박해자들 비판. 인간이 오류를 버리고 참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삶과 구원과 해방의 희망은 오직 하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을 괴롭힌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공격적인 적들처럼 박해받으며, 패배를 인정한 적들에게 베풀어지는 관용조차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가혹하게 고문을 당한다. (48) 자신들의 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박해자들의 명분은 헛되다. 신이라면 인간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박해자들이 강요하는 제사는 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행하는 자가 원치 않는 제사는 유효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할 만큼 제사를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49) 종교는 자발적이어야 하는 유일한 행위다. 그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것을 섬겨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박해자들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강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박해자들은 무고한 그리스도교인들을 어리석고 불경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은 정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뒤집힌 것(perversitas)이다. (50) 박해에 동조하는 사람들 비판. 이들은 조상 전래의 종교들을 옹호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지만 이들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다.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인들,

45) Perrin은 47부터, Heck & Wlosok은 47.2부터 5권 요약으로 보았다.

46) Heck & Wlosok은 52까지, Perrin은 53과 54까지 5권 요약에 포함시켰다.

연극에서 신들을 조롱하는 이들,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돌보지 않고 섭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교가 정의이자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경이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기만을 깨닫지 못한다. (51) 철학자들은 참된 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정의를 알지 못했다. 카르네아데스가 그들의 정의를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한 정의가 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는 남의 이익을 돌보고 자신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반박했다. (52) 카르네아데스에 대한 반박. 남의 이익을 돌보고 자신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해함이다. 반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교활함이다. 정의는 지혜와 상치되지 않는다. 정의로운 이는 교활함이 죄임을 알고 무해함(innocentia)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로운 이는 영혼의 불멸함과 내세에서 정의에 대한 보상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리석지 않고, 그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들이 틀렸다.

6권 「참된 숭배」(De vero cultu)의 요약 : 참된 정의 제시 (53-62a)

(53) 하느님은 육체적이지 않은 존재이므로 하느님께 대한 숭배는 온전히 영적이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서 원하는 참된 숭배는 곧 인간의 정의다. (54) 인간의 삶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시인들과 철학자들도 제시했다. 철학자들은 근면의 길과 게으름의 길이 있다고 했으며, 시인들은 정의로운 이들의 길과 불경한 이들의 길이라고 했다. 전자들은 현세의 삶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후자들은 저승에 그 길들이 있다고 여겼다는 점에서 틀렸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지상에 생명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한다. 정의의 첫 번째 의무는 하느님을 인식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주인으로서 외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무는 인간을 형제

로 인식하는 것이다. 악의 근원은 참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연원한다. (55)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신법을 전했고, 신법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명령한다. 그러나 정의의 근원은 황금률이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한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non nocere)이 정의의 첫 번째 단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 타인에게 유익함을 줌(prodesse)은 정의의 두 번째 단계다. (56) 그러나 덕을 심기 전에는 악덕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분노(ira), 물욕(avaritia), 쾌락욕(libido)은 인간의 세 가지 주된 감정이다. 이 감정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감정들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므로, 잘라내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한다. (58) 불의를 당할 때 분노를 참아야 하고, 물욕은 필수적인 것들을 가졌을 때 버려야 하고, 쾌락욕(성욕과 오감의 쾌락욕 포함)에 빠져서는 안된다. 불거리들(검투시합, 연극, 전차경주)은 이교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과 감정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경향 때문에 피해야 한다. (59) 무해함(innocentia)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관련된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국가법보다 더 높은 신법을 지켜야 한다. 살인, 간음, 거짓증언과 관련된다. (60) 무해함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데에서 완성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애공(misericordia)을 행해야 한다. (60) 애공행위의 예.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에 애공하는 이를 대우하신다. (61) 믿음(fides)은 정의의 큰 부분으로서 먼저 하느님께 대한 경외(religio)에서 지켜야 한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라는 보상을 생각하며 그 어떤 고통을 견뎌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자. 다음으로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한다. 믿음의 덕은 삶의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지켜야 하며 특히 결혼한 부부의 믿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믿음은 정결(castitas)과 연결된다. 결혼한 부부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정결의 덕을 지켜야 한다. (62a)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불멸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회

개(paenitentia)의 덕이 필요하다. 누구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의로울 수 없다. 이와 연관되어 늘 죄를 고백하고 불행에 처했을 때에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겸손(humilitas)의 덕이 필요하다.

7권 「복된 삶」(De vita beata)의 요약 : 영혼의 불멸성 논변과 종말론(62b-6747)

(62b) 영혼의 불멸성 논변. 섭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은 존재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해왔거나 자발적으로 생겨났거나 작은 씨앗들이 뭉쳐져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틀렸다. 시작점 없이, 낳아주는 존재 없이 존재하는 자연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유일함과 하느님에 의한 세상의 창조와 영혼의 불멸성을 아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계획 전체를 알지 못했다. (63) 플라톤과 스토아학과 비판. (64) 하느님은 인간이 태어나도록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기 위해서이며,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 목적은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이며, 하느님을 경배하는 목적은 불멸의 상을 받기 위해서이며, 불멸의 상을 받는 목적은 영원히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65) 영혼의 불멸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한다. 세상은 아직 6천년이 완성되지 않았다. 7천년이 완성되면 모든 악이 제거되고 정의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66) 6천년이 다 되고 종말이 다가오면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 것이고 제국은 흔들릴 것이다. 불경한 왕이 일어나서 정의로운 이들을 뒤쫓을 것이다. (67) 그때 그리스도가 지상에 내려와서 악마를 가두고 정의로운 왕국을 세워 천년동안 다스릴 것이다. 천년 뒤에는 악마가 풀려나고 다시 정의로운 이들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하느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의한 이들에게 불과 유황과 우박이 퍼부어지고 불의한 이들이 서로를 학살한 뒤에 3일 후에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시신이 던져질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정의로운 이들을 불멸하는 천사의 형상으로

47) Heck & Wlosok은 68을 7권 요약에 포함시켰다.

변모시킬 것이고 영원히 하느님을 섬기게 할 것이며,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결론 : (68) 모든 일들은 확실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고의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야 한다. 이교 신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영혼을 유혹하는 쾌락들을 던져버리고, 무해함을 견지하고,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고(prosit), 선행을 통해 썩지 않는 보화를 얻고, 심판관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신앙의 화관과 불멸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그리스도교 정의관을 세우는 논변 구조

『거룩한 가르침』 5권에서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를 대변인 삼아서 실정법이 공동체와 개인들의 이기적인 이해 속에서 제정되고 강제됨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하여 자연법이 정의로울 뿐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⁴⁸⁾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 이 내용은 47-52에 매우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락탄티우스는 먼저 박해자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불경하고 어리석게 여기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반면에 자신들은 정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뒤집힌’ 상황을 고발한다. 그는 박해자들이 박해를 정당화하는 논변들을 반박한 뒤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불경하고 어리석다는 인식은 틀렸다고 주장한다(47-50.4). 이 논증을 위해서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논의를 끌어온다. 『거룩한 가르침』에는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시민적 정의(iustitia civilis)와 자연적 정의(iustitia naturalis) 두 가지로 나눈

48) Bowen & Garnsey(2003), 53.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는 여러 칙령이 반포되고 정치인들과 재판관들이 반그리스도교 정책을 편 것이 락탄티우스가 실정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월함을 논증하게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같은 쪽.

것이며, 시민적 정의는 지혜롭지만 정의롭지 않고 자연적 정의는 정의롭지만 지혜롭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락탄티우스의 해석이 있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는 이런 분류와 해석이 빠져있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교의 박해자들이 시민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고, 그들은 정의롭지 않음을 논증한다고 볼 수 있다. 락탄티우스는 다시 카르네아데스를 논박함으로써 자연적 정의가 정의로우며 동시에 지혜로움을 논증한다(50.5-52.7). 그의 결론(52.8-10)은 이 논변이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논변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인들의 순교를 정당화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독려하는 데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 박해 정당화 논변 반박

락탄티우스는 박해자들을 비판하며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리석은 이들로 여겨지는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려고 한다. 박해자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말로 비난하는 것도 부족해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유죄판결을 내리고, 새로운 고문방식까지 고안하면서 가혹하게 그리스도교인들을 괴롭힌다. 특히 국가의 적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박해를 당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일 따름이다. 락탄티우스가 보기에 박해자들이 이렇게까지 폭압적인 이유는 그들이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을 설득할 수 없고 악행을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어는 적들보다 더 많이 박해한다. 적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들의 형벌은 죽음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무기를 내려놓은 뒤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던 자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해 마땅할지라도 아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창들 사이에서 경건함이 자리를 차지한다. 무해함이 패배한 적들의 조건의 근처에 가

지 못할 때 그 잔인함은 들어본 바 없는 것이다.⁴⁹⁾

이토록 큰 광기의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이성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폭력으로 찍어 누르고, 바로 그 무죄함에 대해 동의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리스도교인들을) 가장 해악한 자들로 유죄판결 내린다. 저들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빠르고 간단하게 죽으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어떤 죄가 아니라 진리가 가져오는 증오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고안해낸 여러 고문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⁵⁰⁾

이하에서 락탄티우스는 박해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을 반박한다. 첫째, 박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신들이 정말로 신성을 가진 신이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므로 인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보호하는 일을 떠맡은 사람은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¹⁾ 인간이 신의 권능을 믿는다면 굳이 나서서 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신이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직접 보복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박해자들은 틀렸고, 하느님의 이름을 박해하더라도 침묵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지

49) 『거룩한 가르침 요약』 47.3. *immo etiam plus quam hostes, quorum, cum bello victi fuerint, aut mors aut servitus poena est nec ullus post arma deposita cruciatus, quamvis omnia pati meruerint qui facere voluerunt, et inter mucrones locum pietas habet.* 4. *inaudita est crudelitas, cum innocentia nec victorum hostium condicionem meretur.* 이하 논문에서 인용하는 『거룩한 가르침 요약』의 출처는 Heck & Wlosok(1994)이다.

50) 『거룩한 가르침 요약』 47.4. *quae tanta huius furoris est causa? scilicet quia ratione congregi non queunt, violentia premunt, incognita causa tamquam nocentissimos damnat, qui constare de ipsa innocentia noluerunt.* 5. *nec satis putant, si celeri ac simplici morte moriantur, quos inrationabiliter oderunt, sed eos exquisitis cruciatibus lacerant, ut expleant ‘odium’, quod non peccatum aliquod, sed ‘veritas parit’ (...)*

51) 『거룩한 가르침 요약』 48.3. *qui enim patrociniū dei quem colit suscipit, illum esse nihili confitetur.*

않고 잔인한 고문을 견뎌내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옳게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박해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우리가 옳다. 거짓 신들의 변호자들이 참된 신(하느님)에 맞서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박해할 때, 우리는 행위로도 말로도 맞서 싸우지 않고, 다만 온유하고 침묵하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반대하는 잔인함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낸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서 곧복수가 뒤따르리라고 우리는 바라고 있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다. 한편으로는 이 악행을 감히 저지른 그 모든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누구도 죄 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⁵²⁾

둘째, 신들에 대한 제사를 강요하는 것은 신들에게도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헛될 뿐이다. 억지로 올리는 제사는 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올리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락탄티우스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그 일이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설령 자신이 치명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따를 자유가 있음을 강력히 어조로 주장하는 48-49의 내용은 당대 순교자들의 생각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52) 『거룩한 가르침 요약』 48.4. nos igitur recte. nam cum isti defensores falsorum deorum adversus verum deum rebelles nomen eius in nobis persequuntur, nec re nec verbo repugnamus, sed mites et taciti et patientes perferimus omnia, quaecumque adversus nos potest crudelitas machinari. habemus enim fiduciam in deo a quo expectamus secuturam protinus ultionem. 5. nec est inanis ista fiducia, siquidem eorum omnium, qui hoc facinus ausi sunt, miserabiles exitus partim cognovimus, partim vidimus nec ullus habuit impune (...)

의욕이 있는 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이를 끌고 가는 그 일은 악행임이 분명하다. 원치 않는 자에게 조언하려는 것은 대체 무슨 어리석음인가? (...) 호의는 일의 속성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근거해서 가치가 매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게 악행인 것을 당신은 왜 호의로 여기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당신의 신들을 경배하기를 바라는가?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나는 질투하지 않는다. 당신 혼자 당신의 좋은 일을 즐겨라. (...) 그것이 나쁜 일이라면, 왜 나를 악의 운명으로 붙잡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쓸지니.’⁵³⁾ 나는 나쁨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좋음 속에서 죽는 것을 원한다.⁵⁴⁾

세 번째 반박 논점은 박해자들의 태도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박해자들은 조상 전래의 공적 종교를 혐오한다면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락탄티우스가 보기에 진리가 명백하다면 조상들이 빠진 오류를 답습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인들 외에 조상들의 종교를 지키지 않는 다른 집단을 처벌하지 않는다. 온갖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연극 무대에서 신들을 조롱하는 배우들을 처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가장 재치 있게 조롱할수록 그들을 칭송한다.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자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신이 돌보지 않는다거나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모순이다.

53)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12.932. Heck & Wlosok(1994), 72에서 재인용.

54) 『거룩한 가르침 요약』 48.7. unde apparet malum esse illud, ad quod non inlicis volentem, sed trahis recusantem. quae stultitia est consulere velle nolenti? 9. beneficium enim non ex qualitate rei debet, sed ex animo eius qui accipit ponderari. cur pro beneficio imputes, quod mihi maleficium est? 10. vis me deos tuos colere, quod ergo mihi mortiferum duco? si bonum est, non invideo; fruiere solus bono tuo (...) 11. si malum, quid me ad consortium mali rapis? ‘utere sorte tua’. ego malo in bono mori quam in malo vivere.

결론적으로, 박해자들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교는 불경이나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고, 박해자들 자신은 정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긴다. 락탄티우스의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히 ‘뒤집혀진’ 인식이며 ‘기만’이다.

죄가 없는데도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가망 없고 불경한 자로 불리고, 반면 고문하는 사람은 정의롭고 경건하다고 일컬어진다면, 저 뒤집혀짐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⁵⁵⁾

대신, 저들은 오직 모든 이들 중에서 하느님과 진리를 따르는 이들만을 불경한 자들이라고 판결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동시에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불경 혹은 어리석음이라는 잘못을 한다고 비난하며 악에 선의 이름을 붙이고 선에 악의 이름을 붙일 때, 저들은 저들을 기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⁵⁶⁾

나. 박해자들의 정의관 반박 : 카르네아데스적 논변

박해자들의 정의관을 반박하기 위해 락탄티우스가 택하는 방식은 고전 정의론과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논변을 끌어오는 것이다. 먼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이전 철학자들의 정의 개념을 요약한 뒤에 이들의 정의론을 아카데미 학파의 주장이며 회의주의자였던 카르네아데스가 이미 논박했다고 지적하고, 카르네아데스의 주장을 인용한다.

철학자들 중에 아주 많은 이들이 정의에 대해서 말했으나, 특히 플

55) 『거룩한 가르침 요약』 49.7. quae ista est perversitas, ut qui torquetur innocens desperatus atque impius nominetur, carnifex autem iustus piusque dicatur?

56) 『거룩한 가르침 요약』 50.4. sed soli ex omnibus impii iudicantur, qui deum, qui veritatem sequuntur. quae cum sit eadem iustitia, eadem sapientia, hanc isti vel impietatis vel stultitiae crimine infamant nec perspiciunt, quid sit quod eos fallat, cum et malo vocabulum boni et bono mali nomen imponunt.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말을 했다. 그들은 정의를 덕이라고 주장하고 최고의 찬사를 하며 지켜세웠다.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것(suum cuique)을 돌려주고,⁵⁷⁾ 모든 이들 사이에서 공평함(aequitas)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덕들은 마치 침묵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반면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획득되고 감춰져 있지 않고 밖으로 만사에 미치며,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하게끔 선행을 하는 그러한 덕은 오직 정의뿐이라고 하였다.⁵⁸⁾

락탄티우스는 이 정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의 개념 속에서 정의는 마치 재판관들에게만, 그들의 권한에만 놓여있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락탄티우스에게 정의는 “모든 사람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덕이다. 철학자들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선인 정의를 오직 소수에게, 재판관들에게만 속한 것으로 돌렸고, 정의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했다. 이 정의론의 허점은 이미 카르네아데스가 반박한 바 있기 때문에 락탄티우스는 직접 이 정의론을 반박하지 않고 카르네아데스의 논변을 가져온다. 철학자들이 카르네아데스에 의해 반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을 몰랐기에 참된 정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재능과 날카로움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돋보일 만했던 카르네아데스가 저들의 주장에 반박했고, 확고한 기

57) 키케로, 『의무론』 (*De Officiis*) 1.15. in (...) tribuendo suum cuique ;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De Natura Deorum*) 3.38. iustitia, quae suum cuique distribuit, quid pertinet ad deos? Monat(1973), 61 각주 3.

58) 『거룩한 가르침 요약』 50.5. Plurimi quidem philosophorum, sed maxime Plato et Aristoteles de iustitia multa dixerunt adserentes et extollentes eam summa laude virtutem, quod suum cuique tribuat, quod aequitatem in omnibus servet; et cum ceterae virtutes quasi tacitae sint et intus inclusae, solam esse iustitiam, quae nec sibi tantum conciliata sit nec occulta, sed foras tota promineat et ad bene faciendum prona sit, ut quam plurimis prosit.

반을 갖지 못했던 정의를 뒤집어버렸다.⁵⁹⁾

왜냐하면 만약 정의가 참된 신(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주인으로 경외하고 하느님의 법과 계명에 복종하는 것만큼 공평하기 위해 정의로운 것, 공경을 위해 경건한 것,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 따라서 철학자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다. 바로 그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느님에 대한 예배와 하느님의 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카르네아데스가 그들을 논박할 수 있었다.⁶⁰⁾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는 논의의 목적과 방법, 정의의 정의(定義)⁶¹⁾, 카르네아데스 논변에 대한 해석 등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락탄티우스의 논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 원문을 참조해보자. 논의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정의가 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왜 지혜로운 이들이 어리석게 여겨지는지 그 이유에는 근거가 있다. 사람들이 까닭 없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 정의는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일종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신적인 증거와 인간적인 증거 둘 다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정의는 참된 지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

59) 『거룩한 가르침 요약』 50.8. nec immerito extitit Carneades homo summo ingenio et acumine, qui refelleret istorum orationem et iustitiam, quae fundamentum stabile non habebat, everteret.

60) 『거룩한 가르침 요약』 51.1-2. Nam si iustitia est veri dei cultus - quid enim tam iustum ad aequitatem, tam pium ad honorem, tam necessarium ad saltuem quam agnoscere ut parentem, venerari ut dominum eiusque legi et praeceptis obtemperare? -, nescierunt ergo iustitiam philosophi, quia nec ipsum deum agnoverunt nec cultum eius legemque tenuerunt.

61) 5.14.11-17에서 정의의 첫째 부분을 경건함(pietas), 두 번째 부분을 동등함(aequitas)이라고 정의 내린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문에 정의로운 이는 그 누구라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의 권위자들을 끌어와서 가르쳐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⁶²⁾

락탄티우스는 “정의를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일종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정의가 어리석음이라는 주장은 아카데미아 학파의 주장이며 회의주의자였던 카르네아데스가 기원전 155년에 로마에 왔을 때 정의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 중 하나다.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논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155년 아테네인들이 오르푸스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을 때 중재자였던 로마 원로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자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을 대변하기 위해 세 철학 학파의 주장들을 보냈다. 아카데미 학파의 주장이었던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학파의 디오게네스와 소요학파의 클리톨라우스와 함께 로마로 파견되었다. 원로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카르네아데스는 이틀에 걸쳐서 로마인들에게 정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첫날 국가의 통치에서 정의가 필요함을 역설한 뒤, 다음 날 논변을 뒤집어 국가 통치는 불의(iniustitia) 없이 불가능함을 논증했다. 카르네아데스의 연설은 로마인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청중들 가운데 있었던 카토는 로마의 청년들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서둘러 아테네 사절단을 돌려보내도록 했다. 키케로는 후에 『국가론』에서 카르네아데스의 논의를 재현하는데, 논의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푸리우스(필루스)를 내세워 국가의 통치에서 자연법은 없고 국가의 통치에는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증을 한 뒤에 라일리우스의 연설을 통해 자연법과 정의를 옹호했다.⁶³⁾

62) 『거룩한 가르침』 5.14.1. Quae vero causa sit ut eos qui sapientes sunt stultos putent, magna ratio est. (...) 2. Iustitia suapte natura speciem quamdam stultitiae habet, quod ego et divinis et humanis testimoniis confirmare possum. Sed nihil fortasse apud istos agamus, nisi eos de suis doceamus auctoribus non posse quemquam iustum esse, quod est coniunctum cum vera sapientia, nisi idem stultus esse videatur.

63) 『거룩한 가르침』 5.14.3-5에 이 내용이 있다. Hornblower & Spawforth

『거룩한 가르침 요약』으로 돌아가서, 51.2-5에 나타나는 카르네아데스 논변을 살펴보자. 카르네아데스는 자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생명체는 본성에 따라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에 몰두할 뿐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롭기를 목표로 한다면 자기 자신들에게는 해를 끼칠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카르네아데스의 주장의 근거는 우선 공적인 이해관계인 로마제국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로마인들이 만약 정의를 추구하고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준다면, 자신들이 차지한 부를 내놓고 가난해져야 한다. 그것은 부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사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금을 황동이라고 파는 사람, 은을 납이라고 파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정의로운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제값을 주고 살 것이므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는 정의롭지만 동시에 어리석다고 평가될 것이다.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정의로운 이의 손해는 더 명확해진다. 바다 위에서 난파를 당한 사람이 판자에 매달려있는 힘이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혹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중에 어떤 부상자가 말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판자나 말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의 목숨을 구했으나 정의롭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므로 어리석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낸다면, 자기 목숨을 구했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악한 사람이다. 이하는 카르네아데스 논변을 언급한 부분의 전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논변은 이것이다 : 그 어떤 자연법도 없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그 이끄는 본성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 따라서 정의는, 만약 그것이 남의 이익은 신경 쓰고 자기의 이익은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불려야 한다. 하지만 만약 모든 통치권을 가진 종족들, 또 세상을 차지한 로마인

edd.(2005),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3 rev. ed.), Oxford University Press의 ‘Carneades’ 항목과 Zetzel(1996),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 A Carneadean Debate in Cicero and Virgil”, *Classical Philology*(Vo.91, No.4), 298도 참조했다.

들 자신이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며 힘과 무기로 차지했던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되돌려주고자 한다면, 그들은 집과 가난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진정 정의롭지만, 남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금을 황동이라고 팔고 은을 납이라고 파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는 모르는 척하고 싼값에 그것을 살까, 아니면 알려줄까? 만약 알려준다면 여하간 그는 정의롭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속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리석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남에게는 이익을 주고 자신에게는 손해를 끼쳤으니까.

하지만 이런 손해에 관해서는 쉽다. 왜인가? 만약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서 (남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는 무엇을 할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 배가 난파되었을 때 어떤 힘이 약한 사람이 판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군대가 패배해서 달아나는 중에 어떤 부상자가 말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판자에서 혹은 말에서 쫓아낼 것인가? 만약 그가 정의롭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는 동시에 어리석다고 여겨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목숨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이에 자기의 목숨은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므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이므로 악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⁶⁴⁾

64) 『거룩한 가르침 요약』 51.2. et ideo refelli potuerunt a Carneade, cuius haec fuit disputatio: nullum esse ius naturale; itaque omnes animantes ipsa ducente natura commoda sua defendere et ideo iustitiam, si alienis utilitatibus consulit, suas negligit, stultitiam esse dicendam. 3. quodsi omnes populi, penes quos sit imperium, ipsique Romani, qui orbem totum possederint, iustitiam sequi velint ac suum cuique restituere, quod vi et armis occupaverunt, ad casas et egestatem revertentur. quod si fecerint,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는 이 논변에 대한 해석이나 박해자들의 정의론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없다. 저자로서는 이것으로 “악에다가는 선의 이름을 붙이고 선에다가는 악의 이름을 붙이는” 박해자들에 대해 충분히 반박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거룩한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락탄티우스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두 부분으로, 하나는 시민적 정의(iustitia civilis)로 다른 하나는 자연적 정의(iustitia naturalis)로 부르면서 나누었을 때, 그는 시민적 정의는 지혜이지만 정의는 아니고, 자연적 정의는 정의이지만 지혜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둘 다를 뒤엎었다. 이는 예리하고 위협적인 논변이었고, 키케로는 여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라일리우스를 내세워 푸리우스에 맞서서 정의를 옹호하게 했지만 이 논변들이 마치 함정인 것처럼 반박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그래서 라일리우스는 어리석다는 혐의를 받은 자연적 정의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정의를 변호한 것처럼 보인다.⁶⁵⁾

iustos quidem, sed tamen stultos iudicari necesse est, qui, ut aliis prosint, sibi nocere contendunt. 4. deinde si reperiat aliquis hominem, qui aut aurum pro orichalco aut argentum pro plumbo vendat per errorem, atque id emere necessitas cogat, utrum dissimulabit et emet parvo an potius indicabit? si indicabit, iustus utique dicetur, quia non fefellit, sed idem stultus, qui alteri fecerit lucrum, sibi damnum. 5. sed facile de damno est. quid? si vita eius in periculum veniet, ut eum necesse sit aut occidere aut mori, quid faciet? potest hoc evenire, ut naufragio facto inveniatur aliquem imbecillum tabulae inhaerentem aut victo exercitu fugiens reperiat aliquem vulneratum equo insidentem; utrumne aut illum tabula aut hunc equo deturbabit, ut ipse possit evadere? si volet iustus esse, non faciet, sed idem stultus iudicabitur, qui dum alterius vitae parcat, suam prodet. si faciet, sapiens quidem videbitur, quia sibi consulat, sed idem malus, quia nocebit.

65) 『거룩한 가르침』 5.16.12. Ita ergo iustitiam cum in duas partes divisisset, alteram civilem esse dicens, alteram naturalem, utramque subvertit, quod illa civilis sapientia sit quidem, sed iustitia non sit, naturalis autem illa iustitia sit quidem, sed non sit sapientia. 13. Arguta haec plane ac venenata sunt et quae Marcus Tullius non potuerit refellere. Nam cum faciat Laelium Furio respondentem pro iustitiaque dicentem, irrefutata haec tamquam foveam praetergressus est, ut videatur idem Laelius non naturalem, quae in crimen stultitiae venerat, sed illam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시민적 정의와 자연적 정의로 나누었고, 전자는 지혜이지만 정의는 아니며 후자는 정의이지만 지혜는 아님을 예리하게 지적했다고 평가한다. 락탄티우스가 하고자 했던 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박해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시민적 정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합당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카르네아데스의 논증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박해자들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으며, 그리스도교인들을 ‘어리석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하에서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다. 지혜와 정의의 통합 : 카르네아데스 반박⁶⁶⁾

이하에서는 ‘시민적 정의가 지혜롭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박해자들이 지혜롭지도 않음을 논증하고 ‘자연적 정의가 지혜롭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이 지혜로움을 논증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그 전에 락탄티우스가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는 카르네아데스가 이런 논의를 펼친 이유는 정의로운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옹호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⁶⁷⁾

civilem defendisse iustitiam, quam Furius sapientiam quidem esse concesserat, sed iniustam. 이하에서 인용하는 『거룩한 가르침』 5권의 출처는 Monat(1973)이다.

66) 락탄티우스가 전개한 카르네아데스 논박 구조는 Bowen & Garnsey(2003), 34-35와 Nicholson(1999), “Civitas Quæ Adhuc Sustentat Omnia: Lactantius and the City of Rome”, in W.E. Klingshirn & M. Vessey ed., *The Limits of Ancient Christianity: Essays on Late Antique Thought and Culture in Honor of R.A. Markus*, Michigan: Ann Arbor, 20-23을 참조했다.

(카르네아데스가 정의를 뒤집어버린 이유는) 정의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옹호하는 자들이 실상 그 어떤 확고부동한 것도 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⁶⁸⁾

락탄티우스가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하는 방식⁶⁹⁾은 첫째, 지혜와 어리석음을 재정의하고, 둘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의 보상 개념을 들여오는 것이다. 카르네아데스가 말하는 ‘지혜’는 남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앎과 의지이다. 이것은 지혜(sapientia)가 아니라 교활함(calliditas)이나 간교함(astutia)으로 불려야 한다. 카르네아데스가 ‘지혜롭다’고 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교활한 사람에 불과하다. 박해자들의 정의인 시민적 정의가 ‘지혜’일지는 몰라도 정의는 아니라는 점을 위에서 밝혔다면, 여기서 락탄티우스는 그들의 ‘지혜’가 사실은 교활함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67)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카르네아데스가 단지 정의로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거룩한 가르침』 5.17.9. 카르네아데스는 정의의 본성이 무엇인지 감지했지만 정의가 어리석음과 다른 것임을 깊이 꿰뚫어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할 것 같다. 그는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이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정의로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인 ‘아무것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진실이 모호함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Sensit igitur Carneades quae sit natura iustitiae, nisi quod parum alte perspexit stultitiam non esse : quamquam intellegere mihi videor qua mente id fecerit. Non enim vere existimavit eum stultum esse qui iustus est, sed, cum sciret non esse, et rationem tamen cur ita videretur non comprehendret, voluit ostendere latere in abdito veritatem, ut decretum disciplinae suae tueretur, cuius summa sententia est ‘nihil percipi posse’.*

68) 『거룩한 가르침 요약』 50.8. (...) non quia vituperandam esse iustitiam sentiebat, sed ut illos defensores eius ostenderet nihil certi, nihil firmi de iustitia disputare. 『거룩한 가르침』 5.14.5.에서는 카르네아데스의 의도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69) 『거룩한 가르침』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반박은 정의로운 이의 자족성이다. 정의로운 이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카르네아데스가 제시한 상황들 자체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5.17.10.

이로써 박해자들은 정의롭지도 지혜롭지도 않음이 분명해진다.

다른 재정의는 어리석음에 관한 것이다. 어리석게 보이는 정의는 사실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innocentia)이다.⁷⁰⁾ 다시 말해, 남을 해치느니 자신이 해를 입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무해한 자다.

정의도 어리석음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리석음은 아니고, 악의도 지혜와 비슷한 모습을 지니지만 지혜가 아니다. 그러나 저 악의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교활한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교활함 혹은 간교함인 것처럼, 그와 같이 정의도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해함이라고 불려야 한다.⁷¹⁾

락탄티우스는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는 무해함을 옹호하는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생략했다. 락탄티우스의 주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거룩한 가르침』을 살펴보자. 피타고라스 학파의 핀티아스와 다몬의 일화는 이교도들이 우정과 신의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례가 된다. 우정과 신의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면, 무해함을 위해 죽는 것 역시 영광이며, 이교도들이 인간을 위해 죽는 것이 칭송받아야 할 일이라면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느님을 위해 죽는 것 역시 칭송받아야 할 일이어야 한다.

나는 기꺼이 이렇게 말한다 : (정의로운 이)는 죽이느니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유일한 선인 정의가 어리석음의

70) 무해함(innocentia)은 락탄티우스가 정의의 핵심 중 인간에 대한 사랑(caritas)의 첫번째 단계이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 55.4.

71) 『거룩한 가르침 요약』 52.1. nam et iustitia imaginem habet stultitiae, non tamen stultitia est, et malitia imaginem sapientiae, non tamen sapientia est. 2. sed sicut malitia ista in conservandis utilitatibus suis intellegens et arguta non sapientia est, sed calliditas vel astutia est, ita et iustitia non debet stultitia, sed innocentia nominari (...)

이름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 무해함보다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⁷²⁾

그러니 우정과 신의를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진다면 무해함을 위해 죽는 것 또한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 죽고자 한 이를 최상의 칭송을 하며 하늘로 드높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⁷³⁾

다시 『거룩한 가르침 요약』의 논의로 돌아가면, 정의로운 이는 본성상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정의로우려면 반드시 먼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는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다.

정의로운 이는 필연적으로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이는 필연적으로 불의할 수밖에 없다. 즉 이성도 (정의의) 본성 그 자체도 정의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않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이는 어떻게든 올바르게 좋은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며, 사되고 악한 일은 언제나 피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의는 어리석은 자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지혜는 정의롭지 않은 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자에서 난파당한 사람을, 말에서 부상자를 내던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는 해를 끼치는 일, 곧 죄가 되는 일을 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를 피하는 일은 지혜로운 이에게

72) 『거룩한 가르침』 5.17.20. Non invictus confiteor : morietur potius quam occidat. 21. Nec ideo tamen iustitia, quod est singulare hominis bonum, stultitiae nomen accipiet. Quid enim melius, quid carius esse homini debet quam innocentia?

73) 『거룩한 가르침』 5.17.24. Itaque non video quare, cum pro amicitia et fide mori summa gloria computetur, non etiam pro innocentia perire sit homini gloriosum. Ergo stultissimi sunt qui nobis crimini dant mori velle pro deo, cum ipsi eum qui pro homine mori voluit, in caelum summis laudibus tollant.

속하기 때문이다.⁷⁴⁾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는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모호하게 지나간 측면이 없지 않다. 『거룩한 가르침』을 살펴보자. 락탄티우스는 이성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고, 동물은 그렇지 않다. 무해함은 오직 이성과 선악에 대한 앎을 지니고 있는 인간만이 행할 수 있으며, 이성이 없는 동물은 행할 수 없다. 남에게 해를 입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은 동물들과 구별되는 의무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⁷⁵⁾

하지만 관자에서 난과당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사람은 죄를 피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손해를 입는 것이고, 결국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은 박해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 중 일부가 했을 법한 질문이다. 락탄티우스는 이에 죄를 피한 정의로운 이들은 합당하고 어울리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다고 답한다. 사람들이 흔히 정의로운 이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유는 영혼이 육신과 함께 소멸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죽음이 끝이 아니며 정의의 덕에는 불멸이라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무해함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덕이 된다.⁷⁶⁾

74) 『거룩한 가르침 요약』 52.3. quia necesse est et iustum esse sapientem et eum qui sit stultus iniustum. nam neque ratio neque natura ipsa permitti, ut is qui iustus est sapiens non sit, quoniam iustus nihil utique facit nisi quod rectum et bonum est, pravum et malum semper fugit. 4. (...) potest igitur neque stulto iustitia neque iniusto sapientia convenire. 5. ergo stultus non est, qui nec tabula naufragum nec equo saucium deiecerit, quia se abstulit a nocendo, quod est peccatum; peccatum autem vitare sapientis est.

75) 『거룩한 가르침』 5.17.29.

76) 『거룩한 가르침』에서는 직접 키케로를 인용하며 덕이 그 자체로 보상이라는 키케로의 견해를 넘어서고자 한다. 키케로의 견해가 거기에 머무른 이유는 그리스도교를 몰랐기 때문이다. 『거룩한 가르침』 5.18.4. 키케로에서, 그와 동일 인물인, 정의의 옹호자 저 라일리우스는 말한다. “덕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며, 덕에는 그 어떤 다른 보상이 없다.” 그러나 라일리우스여, 당신이 거룩한 책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음으로써 남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나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돌보는 사람은 명백히 어리석게 행동하는 셈이다. 죽음이 영혼을 소멸시킨다면, 우리는 더 오래, 더 편히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죽음 뒤에도 영원하고 복된 삶이 남아있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게 될지 알고 있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이는 이 육체적인 삶을 땅에서 나온 모든 좋은 것들과 함께 낮춰볼 것이다.⁷⁷⁾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박해자들의 생각처럼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라, 정의로우며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상에서 정의를 추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불멸이라는 복된 상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참된 신이 아닌 감각이 없는 형상들에게 절하는 이들은 “지극히 어리석고 눈멀고 둔하고 동물과 같고”⁷⁸⁾, 이들은 하느님에게서 영원한 별을 받을 것이다.⁷⁹⁾

이 논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2.8-10을 살펴보면, 락탄티우스가

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보상이 있으며, 그것은 덕에 가장 합당한 보상이다. Apud Ciceronem, idem ille iustitiae defensor Laelius : “Vult, inquit, paene virtus honorem nec est virtutis ulla alia merces.” Est plane et quidem virtute dignissima, quam tu, Laeli, numquam poteris suspicari : nihil enim divinarum noveras litterarum.

77) 『거룩한 가르침 요약』 52.7. si enim post mortem nihil est, utique stulte facit, qui alterius animae parcat cum dispendio suae aut qui alterius lucro magis quam suo consulit. si mors animam delet, danda est opera, quo diutius commodiusque vivamus. si autem vita post mortem superest aeterna et beata, hanc utique corporalem cum omnibus terrae bonis iustus et sapiens contemnet, qui scit, quale a deo sit praemium recepturus.

78) 『거룩한 가르침 요약』 52.9. stultissimi et caeci et hebetes et pecudibus aequales

79) 락탄티우스의 카르네아데스 반박에 대해 Monat와 Bowen & Garnsey는 매우 부족한 논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Bowen & Garnsey는 넓게 볼 것을 제안한다. 락탄티우스의 논변은 그리스도교 저자들 중에서 락탄티우스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카르네아데스의 정의에 대한 논증을 논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Monat(1973), 62 ; Bowen & Garnsey(2003), 34.

목적한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메세지는 명백히 이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한다.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정의로우며 지혜롭다는 확신을 갖고 지상에서 겪는 고난을 굳건히 견뎌내자고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해함을 견지하자. 정의를 견지하자. 참된 지혜를 견지할 수 있도록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견디도록 하자. 그리고 비록 사람들에게는 신들에게 술을 따르고 어떤 해도 입지 않고 가는 것보다 고문당하고 죽는 것을 더 원하는 게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용기와 모든 인내를 품고 신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며, 고통도 우리를 깨뜨리지 못하여, 우리의 정신의 활력과 굳건한 항구함이 견지되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 감각이 없는 형상들을 공경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별이 기다리고 있고, 또 참된 신(하느님)을 경배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고문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진짜 지혜이며, 완전한 정의다. 어리석은 자들이 무슨 판단을 하든 혹은 난쟁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대해 심판했던 이들을 후에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⁸⁰⁾

80) 『거룩한 가르침 요약』 52.8. *teneamus igitur innocentiam, teneamus iustitiam, subeeamus imaginem stultitiae, ut veram sapientiam tenere possimus. et si hominibus ineptum videtur ac stultum torqueri et mori malle quam libare diis et abire sine noxa, nos tamen omni virtute omnique patientia fidem deo exhibere nitamur. 9. non mors terreat, non dolor frangat, quominus vigor animi et constantia inconcussa servetur. (...) qui non intellegunt esse mortiferum relicto deo vivo prosternere se atque adorare terrena, qui nesciunt et illos aeternam poenam manere, qui figmenta insensibilia fuerint venerati, et eos, qui nec tormenta nec mortem pro cultu et honore veri dei recusaverint, vitam perpetuam consecuturos. 10. haec est fides summa, haec vera sapientia, haec perfecta iustitia. nihil ad nos attinet, quid iudicent stulti aut quid homunculi sentiant. nos iudicium dei expectare debemus, ut eos postmodum, qui de nobis iudicaverit, iudicemus.*

3. 그리스도교 덕으로서의 정의 개념

가. 정의의 정의(定義), 정의의 보상

28에서는 철학자들이 도덕철학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선이 무엇인지 논의된다. 락탄티우스가 생각하는 최고선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다른 동물에 속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속할 것, 2) 육체가 아니라 오직 정신에만 속할 것, 3) 덕을 통해 획득될 것.⁸¹⁾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것을 최고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락탄티우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⁸²⁾ 락탄티우스는 29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최고선이 무엇인지 논하기 시작한다.

이제 지혜로운 자에게 무엇이 최고의 좋음으로 제시되는지 살펴보자. 인간이 정의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한다.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학식 있는 이들의 모든 논의 중에서도 우리가 정의를 위해 태어났음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⁸³⁾ 이 말

81) 『거룩한 가르침 요약』 28.1. 우리의 전 생애와 행동들이 그것을 향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최고선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것을 인간의 최고선으로부터 찾을 때는 이런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오직 인간에게만 관련될 것, 둘째, 정신의 고유한 것일 것, 마지막으로 덕을 통해 획득될 것이다. Quod sit in vita summum bonum, quaeri necesse est, ut ad illud vita omnis et actiones nostrae dirigantur. cum de hominis summo bono quaeritur, tale constitui debet, primum ut id ad hominem solum pertineat, deinde ut animi sit proprium, postremo ut virtute quaeratur. videamus ergo, an summum nonum, quod philosophi determinant, tale sit, ut nec mutum animal nec corpus attingat nec possit sine virtute conquiri.

82)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이 덕을 최고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른 철학자들보다 낮게 생각한 것이지만, 덕은 최고선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덕이 재난과 고생을 견디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자체를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데,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로서 또 다른 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 28.9.

83) 키케로의 『법률론』 (*De Legibus*) 1.28.에서 일부를 빼고 인용한 것이다. sed omnium quae in hominum doctorum disputatione versantur, nihil est profecto praestabilius, quam plane intellegi nos ad iustitiam esse natos,

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⁸⁴⁾

그 다음에 락탄티우스는 정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도 자기 종족을 아끼는 것처럼, 인간이 같은 종족인 다른 인간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이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하느님을 알게 되도록 하느님에게서 지혜(sapientia)를 받았으므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의무도 지게 된다. 따라서 정의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한 가지는 하느님을 향한 것으로서 경외(religio)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을 향한 것으로서 사랑(caritas)이다.⁸⁵⁾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동물이므로, 우리는 잔인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말의 소통과 생각의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이 인간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의다.⁸⁶⁾
그러므로 ‘지혜는 신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에 관한 앎이다.’ 라

neque opinione sed natura constitutum esse ius.

박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모든 논의들 중에서 우리가 정의실현(iustitia)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정의(ius)가 의견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네. 김정훈(2018), 『인간의 본성과 정의의 원리 - 키케로의 법률론 1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협동과정 석사논문, 62 참조.

84) 『거룩한 가르침 요약』 29.1. Videamus nunc, quod sit propositum sapienti summum bonum. ad iustitiam nasci homines non modo litterae sacrae docent, verum etiam idem ipsi philosophi nonnumquam fatentur. Cicero sic ait : ‘sed omnium, quae in hominum doctorum disputatione versantur, nihil est profecto praestabilius quam plane intellegi nos ad iustitiam esse natos.’ est hoc verissimum.

85) 『거룩한 가르침 요약』 29.5-6.

86) 『거룩한 가르침 요약』 29.4. nec enim ad scelus nascimur, sum simus animal sociale atque commune. (...) quanto magis hominem, qui cum homine et commercio linguae et communione sensus copulatus est, parcere homini oportet eumque diligere! haec est enim iustitia.

고 말한 것은 합당하고 옳다. 우리가 신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와 인간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는 경외를, 인간에게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는 지혜에 속하고, 후자는 덕에 속한다. 정의는 둘 다를 포함한다.⁸⁷⁾

인간이 정의를 위해 태어났다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락탄티우스는 인간이 정의라는 덕을 실현하기 위해 악에 속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덕은 악한 일들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이는 쾌락을 피하고, 재산이나 관직을 추구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겪는다 해도 양값음하지 않고, 자기 것을 빼앗는 자를 뒤쫓지도 않으며, 인간을 해치는 것은 죄악으로 여긴다. 또한 정의로운 이는 누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강요한다면 죽음도 고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이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야만 한다.⁸⁸⁾

그렇다면 정의로운 이의 인생에서 과연 정의를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이에게 불멸이라는 보상을 준비해 두셨다. 인간이 전 생애를 향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은 정의가 아니라 불멸(immortalitas)이다. 인간에게도, 영혼에게도, 덕에게도 관계되는 것은 오직 불멸뿐이다.

그렇다면 삶에서 악 말고 다른 것을 갖지 못한다면 정의와 덕의 결실은 대체 무엇일까? 만약에 땅에 속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모든 악을 다 현명하게 견디고 죽음까지도 의무로 받아들이는 덕이 보상이 있을 수 없다면, 덕의 대가는 오직 불멸 이외에 무

87) 『거룩한 가르침 요약』 29.6. merito ergo ac recte dictum est 'sapientiam esse divinarum et humanarum rerum scientiam'. oportet enim scire nos, quid deo, quid homini debeamus, deo scilicet religionem, homini caritatem.

88) 『거룩한 가르침 요약』 29.8.

엇이 있겠는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철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유일한 지점이다 - 불멸 또한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부패되지 않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부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멸이 최고선이다. 오직 불멸만이 인간에게도, 영혼에게도, 덕에게도 관계되기 때문이다.⁸⁹⁾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간략하게 제시된 락탄티우스의 정의 개념의 정의(定義)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religio)와 인간에 대한 사랑(caritas)으로 제시된다. 또한 정의는 최고의 덕으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삶의 고난을 극복한 인간은 불멸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나. 인간의 정의 : 하느님에게 바치는 참된 제물

락탄티우스는 이교를 비판하면서 단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들의 행적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양식인 의례(ritus)와 숭배(cultus)의 측면에서도 비판했다.⁹⁰⁾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아 바치는 이교 의례들, 예를 들어 손님들(hospites)이나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사제들이 자기의 신체 일부를 바치는 의례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사인 이시스, 케레스, 키벨레 등에게 바치는 제사도 신화 속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헛되다. ‘거짓 종교’인 이교의 숭배 양식을 비판했

89) 『거룩한 가르침 요약』 30.1-3. Quis igitur erit fructus iustitiae atque virtutis, si nihil habebit in vita nisi malum? quodsi virtus, quae bona omnia terrena contemnit, mala universa sapientissime perfert ipsamque mortem pro officio suscipit. sine praemio esse non potest, quid superest nisi <ut> merces eius immortalitas sola sit? nam si cadit in hominem beata vita, ut philosophi volunt in eo solo non dissidentes, cadit ergo et immortalitas. id enim solum beatum est quod incorruptum, id solum incorruptum quod aeternum. immortalitas ergo est summum bonum, quia et hominis et animi et virtutis est tantum.

90) 『거룩한 가르침 요약』 18.

다면 ‘참된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숭배 양식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참된 숭배(verus cultus)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느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인간이 바쳐야 할 제사는 물질적인 봉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봉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이 지닌 욕망, 곧 배고픔, 목마름, 추위와 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간이 바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이미 하느님의 권한 하에 있는 것들이므로 하느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하느님에게 바치는 참된 제물은 비물질적인 것, 곧 인간의 정의(iustitia)다.

육체적이지 않은 분에게는 육체적이지 않은 제사가 필요하다. (...) 하느님께서 인간으로부터 깨끗하고 성스러운 마음의 경배 이외에 무엇을 원하시겠는가?⁹¹⁾

참된 제사는 궤짝에서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꺼내놓는 것이며, 손으로 헌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헌주하는 것이다.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제물이란 정신이 그 자신과 관련하여 봉헌한 것이다.⁹²⁾

따라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뿐이다. 이 안에 제사가 있고, 이 안에 하느님께 대한 숭배가 있다.⁹³⁾

다. 정의의 핵심 :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사랑

91) 『거룩한 가르침 요약』 53.1, 3. sic utique incorporali incorporale sacrificium necessarium est. (...) quid igitur ab homine desiderat deus nisi cultum mentis, qui est purus et sanctus?

92) 『거룩한 가르침 요약』 53.3. hoc est sacrificium verum, non quod ex arca, sed quod ex corde profertur, non quod manu, sed quod mente libatur; haec acceptabilis victima est, quam de se ipso animus immolaverit.

93) 『거룩한 가르침 요약』 53.4. sola ergo iustitia est, quam deus expetit. in hac sacrificium, in hac dei cultus est.

54.4-6에서 락탄티우스는 정의에 속하는 핵심 의무를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구체적인 용어는 『거룩한 가르침』 3권 요약부분 중 최고선을 논하는 자리에서 먼저 언급되었다. 락탄티우스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경외(religio), 다른 인간에 대한 의무는 사랑(caritas)라고 말한다.⁹⁴⁾ ‘인간이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parcere et diligere)’이 정의의 정의인 것처럼 말했지만, 이 내용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므로, 사랑(caritas)에 포함된다. 경외와 사랑 개념은 54.4-6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하느님에 대한 의무인 경외(religio)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인간에 대한 의무인 사랑(caritas)은 다른 인간이 나와 같은 형제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한 하느님에게서 같은 조건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첫 번째 의무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는 낳으셨고, 생명을 주시는 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우리를 기르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분인 동시에,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대해 채찍질할 권리와 삶과 죽음의 권한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분에게 이중의 공경을, 즉 사랑(amor)과 함께 외경(timor)을 드려야 마땅하다.

정의의 두 번째 의무는 인간을 형제로서 알아보는 것이다. 동일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정의와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일괄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낳으셨다면, 우리는 어쨌든 뗄 수 없는 형제의 관계를 통해 묶여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불의하다.

94) 『거룩한 가르침 요약』 29.4. 위에서 인용했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의 결속과 뗄 수 없는 관계의 끈이 이것을 통해 헐겁게 되는 바 이 악의 근원은, 참된 신(하느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다. 이 은혜의 원천을 모르는 자가 결코 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⁵⁾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로운(iustus) 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의무는 하느님에 대한 의무인 경외이고, 경외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버지이자 주인이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서 인간을 형제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는 경외(religio)의 중요성과 사랑(caritas)과의 관계가 『거룩한 가르침』에서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몇몇 문장들에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20.3에서는 위의 54.6에서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앎’을 잃으면서 인간 사회의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51.1에서는 정의가 ‘참된 신(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느님에 대한 앎을 잃어버리고 인간 사회의 저 하나의 끈이 끊어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정복하기 시작했다.⁹⁶⁾

95) 『거룩한 가르침 요약』 54.4. *primum autem iustitiae officium est deum agnoscere eumque metuere ut dominum, diligere ut patrem. idem enim, qui nos genuit, qui vitali spiritu animavit, qui alit, qui salvos facit, habet in nos non modo ut pater, verum etiam ut dominus licentiam verberandi et vitae ac necis potestatem, unde illi ab homine duplex honos, id est amor cum timore debetur.* 5. *secundum iustitiae officium est hominem agnoscere velut fratrem. si enim nos idem deus fecit et universos ad iustitiam vitamque aeternam pari condicione generavit, fraterna utique necessitudine cohaeremus; quam qui non agnoscit, iniustus est.* 6. *sed origo huius mali, quo societas inter se hominum, quo necessitudinis vinculum dissolutum est, ab ignoratione veri dei nascitur. qui enim fontem illum benignitatis ignorat, bonus esse nullo pacto potest.*

96) 『거룩한 가르침 요약』 20.3. *amissa enim dei notitia et uno illo vinculo humanae societatis abrupto vastare se invicem, praedari ac debellare*

왜냐하면 만약 정의가 참된 신(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주인으로 경외하고 신의 법과 계명에 복종하는 것만큼 공명정대함을 위해 정의로운 것, 공경을 위해 경건한 것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 따라서 철학자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다. 바로 그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느님에 대한 예배와 하느님의 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⁹⁷⁾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의 구절들을 인용한다. 5.14.9와 5.14.11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⁸⁾ 정의는 모든 덕을 포함하는 최고의 덕이며, 정의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덕이 있다. 이 두 가지 덕은 하느님과 관계된 경건함(pietas)과 인간과 관계된 동등함(aequitas)이다. 이들은 정의의 동맥이고 다른 덕들의 원천이 되, 첫 번째 덕인 경건함이 정의의 근원이다.

정의는 모든 덕을 함께 껴안는다. 하지만 정의에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주요한 덕이 있는데, 곧 경건함과 동등함이다.⁹⁹⁾

경건함과 동등함은 정의의 동맥과도 같다. 모든 정의가 이 두 가지 원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의 머리이며 근원은 첫 번째에 있고, 모든 힘 및 이성적 기반은 두 번째에 있다.¹⁰⁰⁾

coeperunt.

97) 『거룩한 가르침 요약』 51.1. Nam si iustitia est veri dei cultus - quid enim tam iustum ad aequitatem, tam pium ad honorem, tam necessarium ad salutem quam deum agnoscere ut parentem, venerari ut dominum eiusque legi et praeceptis obtemperare? -, nescierunt ergo iustitiam philosophi, quia nec ipsum deum agnoverunt nec cultum eius legemque tenuerunt.

98) Monat(1973), 59, 각주 6.

99) 『거룩한 가르침』 5.14.9. Iustitia quamvis omnes simul virtutes amplectatur, tamen duae sunt omnium principales, quae ab ea divelli separarique non possunt, pietas et aequitas.

100) 『거룩한 가르침』 5.14.11. Pietas vero et aequitas quasi venae sunt eius, his enim doctus fontibus contat tota iustitia : sed caput eius et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앎의 중요성이 위에서 인용한 51.1에서 드러나는 정도로 설명된다. 즉 하느님을 몰랐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룩한 가르침』 5권과 6권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앎의 중요성이 훨씬 강한 어조로 강조되어 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의를 얻고자 하더라도 정의를 자기 나라의 국가법과 혼동한다.¹⁰¹⁾ 따라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덕은 헛수고가 된다.¹⁰²⁾ 파브리키우스나 아리스티데스같이 “정의로운” 이들도, 카토나 라일리우스, 아테네의 키몬 같은 “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행한 모든 정의는 머리가 없는 몸과 같다.¹⁰³⁾ 반대로 참된 신(하느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인은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불완전하고 허약하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는 자이다.¹⁰⁴⁾

그들이 비록 최고의 믿음을 갖고 무해함을 실천하며 나무랄 데 없이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참된 신(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불경한 의례들을 행하며 (거짓)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정의와 참된 경건함이라는 이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¹⁰⁵⁾

따라서 몸이 살아있고 감각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에 대한 앎이 머리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덕이 몸처럼 필요하다.¹⁰⁶⁾

origo in illo primo est, in secundo vis omnis ac ratio.

101) 이하 논의와 인용은 Ingremeau(2003), 48-49를 참조했다. 『거룩한 가르침』 6.9.2. gentes suae leges tamquam verum ius amplectitur (...)

102) 『거룩한 가르침』 6.9.8. qualem fuisse Cimonem Athenis accepimus (...) tamen cum illud unum quod est maximum deest, agnitio dei, iam bona illa omnia supervacua sunt et inania, ut frustra in his adsequendis laboraverit.

103) 『거룩한 가르침』 6.9.9. Omnia enim iustitia eius similis erit humano corpori caput non habenti.

104) 『거룩한 가르침』 6.9.12.

105) 『거룩한 가르침』 5.10.14. qui licet santis moribus vivant in summa fide atque innocentia, tamen quia deos colunt quorum ritus impios ac profanos deus verus odio habet, a iustitia et a nomine verae pietatis alieni sunt.

106) 『거룩한 가르침』 6.9.11 Itaque ut sit vivum ac sensibile corpus, et

라. 덕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락탄티우스는 인간이 참된 신을 잊고 다신을, 곧 신격화된 인간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사이의 결속이 끊어지고 인간들이 서로에게 악행을 하는 불의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인간들이 서로 불화하고 약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자, 하느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직접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하느님의 법(*lex divina*)을 가르쳐주었다. 락탄티우스가 하느님이 인간에게 직접 가르친 덕으로서 나열하는 것은 경외(*religio*), 믿음(*fides*), 정결(*castitas*), 애공(*misericordia*)이다.¹⁰⁷⁾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하느님의 법에 정해져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인간에 대한 행동의 근원은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 의해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불의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의 뿌리와 공평함의 모든 근원은 당신이 당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¹⁰⁸⁾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사랑의 두 가지 단계가 나온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곧 무해함(*innocentia, non nocere*)이고, 두 번째는 유익함을 주는 것(*prodesse*)이다. 그런데 이러한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악습을 먼저 없애야 하고, 악습을 없애려면 인간의 세 가지 감정(*adfectus*)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agnitio dei necessaria est quasi caput et cirtutes omnes quasi corpus.

107) 『거룩한 가르침 요약』 55.1.의 내용. 여기서 경외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덕, 믿음은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정결과 애공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덕이다.

108) 『거룩한 가르침 요약』, 55.3. *sed radix iustitiae et omne fundamentum aequitatis est illud, ut non facias quod pati nolis sed alterius animum de tuo metiaris.*

하지만 당신이 경작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가시덤불들을 뽑아내고 그루터기들의 모든 뿌리를 잘라낸 뒤에 밭을 깨끗이 고르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악습을 빼내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여러 덕의 씨앗을 뿌려야 하며, 그 씨앗들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심어진 덕의 열매가 싹터 나오게 된다.¹⁰⁹⁾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감정이란 분노(*ira*)와 물욕(*avaritia, cupiditas*)과 쾌락욕(*libido*)이다. 스토아학파는 이 감정들을 잘라내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소요학파는 줄여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둘 다 옳지 않다. 이 감정들은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느님이 갖추어준 것으로서, 완전히 뽑아버릴 수 없다. 또 악하다면 모두 쓰지 않아야 하고 선하다면 전체를 다 써야하는 것이므로, 줄여야 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 생명을 지키게끔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본성상 명백하게 선하며, 단지 인간이 선하게 쓰기 위해 품는다면 덕이 되고 악하게 쓰기 위해 품는다면 악덕이 된다.

용기와 마찬가지로, 만약 조국을 위해 싸운다면 그때 용기는 선한 것이고 조국에 맞서 싸운다면 악한 것이듯이, 그와 같이 이 감정들도 선한 쓰임을 위해 품는다면 덕이 될 것이요, 악한 쓰임을 위해 품는다면 악덕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¹¹⁰⁾

분노는 아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방종과 만용을 억제하도록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분노의 한계를 모르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화를 내게 되고, 살인을

109) 『거룩한 가르침 요약』 55.5. *sed sicut in rudibus agris, priusquam serere incipias, evulsis sentibus et omnibus stirpium radicibus amputatis arva purganda, sic de nostris animis prius vitia detrahenda sunt et tunc demum virtutes inserendae, de quibus seminatae per verbum dei fruges virtutis oriantur.*

110) 『거룩한 가르침 요약』 56.5. *set sicut fortitudo, si pro patria dimices, bonum est, si contra patriam, malum, sic et adfectus, si ad usus bonos habeas, virtutes erunt, si ad malos, vitia dicentur.*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른다. 물욕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갈망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물욕에 빠진 이들은 재산을 모으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쾌락욕은 자녀를 낳기 위해 타고난 것이지만, 한계를 두지 않는 이들은 이 감정을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불륜과 간통과 난봉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감정들을 그 자신의 한계 안쪽으로 붙잡아야 하고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 길 안에서는, 이 감정들이 비록 격렬하다 하더라도, 죄를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¹¹⁾

세 가지 감정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불의를 당하더라도, 무해함과 인내(patientia)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참아야 한다. 물욕은 필수적인 것들을 갖추었을 때는 버려야 한다. 쾌락욕은 혼인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적 쾌락 이외의 다른 감각적 쾌락인 시각, 미각, 후각, 청각의 쾌락에도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볼거리들(spectacula)들도 피해야 한다. 검투시합, 연극, 전차경기장의 경주는 참된 신이 아닌 신들을 섬기는 데에서 기원한 오락들로서, 인간의 감정을 잔인함과 음욕과 사나움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모든 볼거리들을 피해야 하고, 파괴하는 달콤함으로 말미암아 나긋해져서 죽음의 올가미와 그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해로운 즐거움들을 거부해야 한다.¹¹²⁾

111) 『거룩한 가르침 요약』 56.7. redigendi sunt ergo isti adfectus intra fines suos et in viam rectam dirigendi, in qua, etiamsi sint vehementes, culpam tamen habere non possunt.

112) 『거룩한 가르침 요약』 58.9. fugienda igitur omnia spectacula, ut tranquillum mentis statum tenere possimus, renuntiandum noxiis voluptatibus, ne deleniti suavitate pestifera in mortis laqueos <et> plagas incidamus.

마. 인간에 대한 사랑의 핵심 : 무해함과 애공

세 가지 감정들을 약하게 쓰지 않는 습관을 지니게 된 뒤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단계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innocentia)의 덕과 두 번째 단계인 애공(misericordia)의 덕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오직 덕을, 그것이 쾌락을 이겼을 때 그 대가가 불멸인 바의 덕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감정들을 극복하고 쾌락들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면, 하느님과 진리의 추종자인 이에게 나머지 것들을 자제하는 일은 그 수고로움이 손쉽다.¹¹³⁾

무해함 다음에는 애공이 있다. 전자는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전자는 정의의 시작이고 후자는 정의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모든 일이 서로를 돕는 가운데에 놓이도록, 우리에게는 애공(불쌍히 여김)의 감정을 주셨다.¹¹⁴⁾

라탄티우스가 무해함의 예로 드는 여러 가지 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정의로운 사람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불행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로운 이는 아들과 종에게 가혹하지 않을 것인데, 그 자신도 부모와

113) 『거룩한 가르침 요약』 59.1. Placeat sola virtus, cuius merces immoralis est, cum vicerit voluptatem. superatis autem adfectibus et perdomitis voluptatibus facilis in comprimendis ceteris labor est ei, qui sit dei veritatisque sectator.

114) 『거룩한 가르침 요약』 60.1. innocentiae proxima est misericordia. illa enim malum non facit, haec bonum operatur, illa inchoat iustitiam, haec complet. nam cum imbecillior sit hominum natura quam ceterarum animantium, (...) adfectum nobis misericordiae dedit, ut omne praesidium vitae nostrae in mutuis auxiliis poneremus.

주인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층민에게서 지나치게 많은 선물을 받지도 말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부유한 자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5계명(살인하지 말 것), 6계명(간음하지 말 것), 8계명(거짓증언을 하지 말 것)과 관련해서 락탄티우스는 무해함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한다. 인간의 법 위에 하느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¹¹⁵⁾ 살인은 단지 인간의 법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것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영아를 유기하는 것과 자살도 마찬가지로 살인에 포함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 간음은 여러 종족들에게서 공통되게 단죄되는 죄이기 때문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매춘도 포함된다. 거짓증언도 금지되는데, 거짓말 때문에 증언을 당하는 사람이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항상 속이거나 해를 끼치므로, 장난으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무해함이 금지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애국은 행해야 할 것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한 분이신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혈연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므로, 인간은 모든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무해함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의를 당하더라도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또한 수많은 재난과 불행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면, 인간이 서로를 도와야 함은 명백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음을 보는 그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라. 불행에 처해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도움을

115) 『거룩한 가르침 요약』 59.6. 인간의 법 위에 하느님의 법이 있고, 하느님의 법은 정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법에서는 적법한 것도 금지한다. *supra leges enim dei lex est; ea quoque quae pro licitis habentur vetat, ut iustitiam consummet.*

간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일으켜질 것이다.¹¹⁶⁾

애공의 구체적인 행위¹¹⁷⁾로는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줄 것,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힐 것, 누군가가 더 권력 있는 자에게 불의를 당한다면 구해줄 것, 나그네들이나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열어놓을 것, 고아들과 과부들을 보호할 것, 포로들을 속량할 것,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서 돌볼 것, 이방인이나 가난한 이가 죽어서 묻히지 못했다면 장례를 치러줄 것 등이 있다. 락탄티우스는 이러한 애공의 행위가 하느님에게 바쳐야 할 참된 희생제물이라는 것과,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법과 약속에 따라 보상을 주심을 다시 강조한다.

이것이 하느님에게 더 마음에 드실 만한 희생제물이다. 하느님께서 는 가축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경건함으로 인해 더 마음을 돌리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에, 그러한 자를 당신 자신의 법과 당신 자신의 약속으로써 대우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애공을 베푸는 자로 여기시는 사람은 인정을 베푸시고, 간청하는 이들에게 가혹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¹¹⁸⁾

116) 『거룩한 가르침 요약』 60.5. *spera et tibi accidere posse quod alteri videas accidisse; ita demum excitaberis ad opem ferendam, si sumpseris eius animum, qui opem tuam in malis contitutus implorat.*

117) 가톨릭의 일곱 가지 애덕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 일곱 가지 애덕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 집 없는 자에게 머무를 곳을 제공하는 일, 병든 자를 방문하는 일,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는 일, 죽은 자를 묻는 일이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애공을 ‘형애공’(形哀矜)이라고 불렀다. 한국 가톨릭의 예전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의 「봉재 때 찬미경」에 나오는 형애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를 마시우고, 벗은 이를 입히고, 나그네를 접하고, 병든 이와 갇힌 이를 돌아보고, 사로잡힌 이를 속량하고, 죽은 이를 장사하게 하소서.” 윤형중·노기남 편(1958), 『천주성교공과』, 가톨릭출판사, 259-260.

118) 『거룩한 가르침 요약』 60.8. *haec litabilior victima est apud deum, qui non pecudis sanguine, sed hominis pietate placatur, quem deus, quia iustus est, suamet ipsum lege, sua et condicione prosequitur; miseretur eius, quem viderit misericordem, inexorabilis est ei, quem precantibus*

바. 정의에 포함되는 다른 덕 : 믿음과 정결

무해함과 애금 이외에도 믿음, 정결이 정의로운 이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제시된다. 믿음은 하느님과 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믿음은 믿음을 내세우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며, 인간보다 하느님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에 있어서 지켜져야 한다. 락탄티우스는 여기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순교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 함께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일시적인 악보다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이겨낸 이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훗날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덕이라고 설득한다.

그러니 그런 종류의 강요, 곧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것과 종족들의 의례를 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고 해도,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꺾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느님을 눈앞에 두고, 하느님을 마음속에 두라. 그분의 내적인 도움으로 마음의 번민과 우리 몸에 가해지는 고문을 이겨내도록 하자.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의 보상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말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흠어지고 불태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포악한 잔인함의 미친 짓을 전부 쉽게 견뎌낼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죽음 그 자체를 내켜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고 겪도록 해보자. 세상을 이긴 후에 하느님께서 약속해주신 것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써 하느님 앞에 있게 될지, 어떤 복락과 얼마나 큰 행복으로써 이 고난의 악과 이 삶에서 잃은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광을 얻을 기회가 없더라도, 믿음은 평화롭게 보

cernit immitem.

상을 누릴 것이다.¹¹⁹⁾

믿음의 덕은 정결(castitas)의 덕과 연결된다. 삶의 모든 의무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특히 결혼생활에서 지켜져야 한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으로써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정결은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덕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요구되는 덕이기 때문이다. 결혼의 믿음을 지킬 때 남편과 아내는 정결의 덕을 함께 지키는 정의로운 이가 될 수 있다. 정결은 단지 간통과 매춘의 행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것을 원하는 생각을 삼가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므로, 인간은 늘 양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 : 회개와 겸손

여기까지가 락탄티우스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인간의 모습이다. 락탄티우스는 여기에 회개(paenitentia)와 겸손(humilitas)의 덕을 추가한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 누구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곧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인자하

119) 『거룩한 가르침 요약』 61.3. itaque cum inciderit eiusmodi necessitas, ut desciscere a deo atque ad ritus gentium transire cogamur, nullus nos metus, nullus terror inflectat, quominus traditam nobis fidem custodiamus. deus sit ante oculos, deus in corde, cuius interno auxilio dolorem viscerum et adhibita corpori tormenta superemus. 4. nihil tunc aliud quam vitae immortalis praemia cogitemus; ita facile, etsi dissipandi aut urendi artus fuerint, tolerabimus universa, quae in nos tyrannicae crudelitatis amentia molietur. 5. postremo ipsam mortem non inviti aut timidi, sed libentes et interriti subire nitamur, cum sciamus, quali apud deum gloria simul futuri triumphato saeculo ad promissa venientes, 6. quibus bonis, quanta beatitudine brevia haec poenarum mala et huius vitae damna pensemus. quodsi facultas huius gloriae deerit, habebit fides etiam in pace mercedem.

120) 『거룩한 가르침 요약』 62, 3. quia nome esse tam iustus potest, ut numquam sit ei paenitentia necessaria.

신 하나님께서는(pro sua misericordia) 기꺼이 용서를 해주신다. 더 나아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언제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왕 저지른 잘못들을 다시금 뉘우치고, 불행에 처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랑하는 교만한 이보다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III. 결론

본 논문은 락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 요약』이 그리스도교 초기 박해시기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박해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순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순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술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정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락탄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논변을 끌어들이어서 박해자들이 정의롭지 않음을 논증하고, 다시 카르네아데스를 반박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은 정의로우며 동시에 지혜로움을 논증한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는 카르네아데스의 정의 분류(시민적 정의와 자연적 정의)와 락탄티우스의 논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가르침』 원문을 참조하여 락탄티우스의 논증을 고찰하였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지혜롭지만 정의롭지 않거나 정의롭지만 지혜롭지 않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했다. 락탄티우스는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들여오으로써 정의와 지혜를 통합한다. 세속에서 어리석음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무해함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면 이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이는 지혜로우며, 또한 정의로운 이들은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은 정의로우며 지혜로움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정의관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논의에 덧붙인 결론에서 락탄티우스의 목적이 그리스도교인들이 겪는 고난과 순교를 정당화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을 독려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룩한 가르침 요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의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할 참된 제물이다. 또한 정의는 모든 덕을 포괄하는 최고의 덕이며, 정의를 추구하며 삶의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불멸(immortalitas)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 정의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무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religio)와 인간에 대한 사랑(caritas)이다. 경외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주인으로서 두려워(timor)하고, 아버지로서 사랑(amor)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을 형제로서 알아보고, 아끼고 사랑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innocentia)이며, 그 사랑을 완성하는 단계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애궁(misericordia)이다. 『거룩한 가르침』 원문을 참고할 때,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더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해함과 애궁의 덕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악덕을 제거해야 한다. 악덕은 인간의 세 가지 주요한 감정인 분노(ira), 물욕(avaritia, cupiditas), 쾌락욕(libido)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경향성으로서, 악덕을 제거하려면 세 가지 감정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쓰고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무해함의 사례로서 제시되는 덕목은 하느님의 법인 십계명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애궁의 사례로는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자선 행위(일곱 가지)로 정리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정의에 포함되는 또 다른 덕으로는 믿음(fides)이 있는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정결(castitas)의 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의를 가질 수 없는 인간에게는 회개(paenitentia)와 겸손(humilitas)의 덕이 필요하다.

락탄티우스가 제시하는 정의와 다른 덕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 공적 의무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 키케로에서는 대부분 공적이고 시민적이었던 덕들은 락탄티우스에서는 개인적이고 종교적이다.¹²¹⁾ 락탄티우스의 정의 개념은 그가 비판한 이교도 철학자들의 정의 개념과 비교하거나, 혹은 락탄티우스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정의 개념과 비교해본다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락탄티우스가 암브로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등 후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론에서 이

121) Bowen & Garnsey(2003), 53.

미 언급하였던 Garnsey(2002)는 덕과 관련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락탄티우스를 비교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나타나는 락탄티우스의 정의 개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의 기능이 오직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며 하느님에 대한 경건이 없는 사람은 참된 덕을 지닐 수 없다고 했는데¹²²⁾, 이 점은 락탄티우스에서 이미 나타나는 개념이다.¹²³⁾ 이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122) 『신국론』 19.4. 만일 여러 덕들이 참다운 덕이라면 경건한 신심이 깃들어 있는 인간들에게만 존재할 것이다. Si enim verae virtutes sunt, quae nisi in eis, quibus vera inest pietas, esse non possunt. 19.21.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정신은 육체에 올바르게 명령하고, 정신에서도 이성이 주 하느님께 종속됨으로써 정욕이나 그 밖의 악덕들에 올바르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인간 내부에 정의에서 우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가? Serviens autem Deo animus recte imperat copori, inque ipso animo ratio Deo Eomino subdita recte imperat libidini vitiisque ceteris. Quapropter ubi homo Deo non servit, quid in eo putandum est esse iustitiae? 원문과 번역은 성염 역주(2004), 2160-2161, 2222-2223.

123) Garnsey는 관련 구절로 『신국론』 19.4, 19.25, 19.5를 제시한다. Garnsey(2002), 168의 각주 62. 이하는 Garnsey(2002), 168의 글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철학의 사추덕(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죄의 실체에 관한 그리스도교 교리와 긴밀하게 연관 지으며 재정하였다. 그의 『가톨릭 교회의 윤리』(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에서 절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 흠 없이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신국론』에서는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justice)에 관해서는 『가톨릭 교회의 윤리』에서 지적하기를 정의의 기능은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도록 인간을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국론』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종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 철학자들은 그 대상에서 하느님을 제외시켰고, 하느님은 그분의 몫을 받지 못하였다. 키케로의 『국가론』에 나타나는 고전적 정의(定義)는 부족한데, 왜냐하면 정의는 하느님이 인식되지 않고 숭배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덕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덕은 오직 참된 경건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1. 원전

- Heck, E. & Wlosok, A.(1994), *Lactantius Epitome Divinarum Institutionum*, Stuttgart & Leipzig: Teubner.
- Perrin, M.(1987), *Épitomé des Institutions Divines*,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etiennes 335).
- Ingremeau, C.(2007), *Institutions Divines, Livre VI*,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etiennes 509).
- Monat, P.(1973), *Institutions Divines, Livre V, Tome I*, Paris: Les Éditions du Cerf(Sources Chretiennes 204).

2. 번역 및 관련 문헌

- Blakeney, E. H.(1950), *Lactantius' Epitome of the Divine Institutes*, London: SPCK Publishers.
- Bowen, A. & Garnsey, P.(2003), *The Divine Institutes of Lactantiu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 Hornblower & Spawforth edd.(2005),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3 rev. ed.)*, Oxford University Press.
- 아우구스티누스 저, 성염 옮김(2004), 『신국론』 (제19-22권), 분도출판사.
- 윤형중·노기남 편(1958), 『천주성교공과』, 가톨릭출판사.
- 키케로 저, 김창성 옮김(2007), 『국가론』, 한길사.
- 키케로 저, 성염 옮김(2007), 『법률론』, 한길사.

3. 2차 문헌

- Aubin, J.(2016), “La notion de *religio* dans le *De ira Dei* de Lactance : la Providence et la crainte de Dieu au fondement de la religion comme réponse à la

- philosophie épicurienne source des hérésies”, Université Laval Ph.D. dissertation.
- Bryce, J.(1990), *The Library of Lactantius*, Garland Publishing.
- _____.(2019), *Bibliography of Lactantius*, <https://www.carleton.edu/classics/overview/history/lactantius/>
- Coleman, A.P.(2014), “Lactantius and the Doctrine of Providence”, Boston College Ph.D. dissertation.
- Garnsey, P.(2002), “Lactantius and Augustine”, in A.K. Bowman, H.M. Cotton, M. Goodman and S. Price edd., *Representations of Empire: Rome and the Mediterranean World*, OUP/British Academy, 153-179.
- Heck, E.(1978), “Iustitia civilis–iustitia naturalis: à propos du jugement de Lactance concernant les discours sur la justice dans le “De re publica” de Cicéron”, in J. Fontaine & M. Perrin edd., *Lactance et son Temps: Recherches Actuelles (Actes Du IVe Colloque D'études Historiques et Patristiques, Chantilly)*, Paris : Éditions Beauchesne, 171-184.
- Ingremeau, C.(2003), “Lactance et la Justice : du livre V au livre VI des Institutions Divines”, in Jean-Yves Guillaumin & Stéphane Ratti edd., *Autour de Lactance : hommages à Pierre Monat*, Besançon : Institut des Sciences et Techniques de l'Antiquité, 43-52.
- Nicholson, O.(1999), “Civitas Quæ Adhuc Sustentat Omnia: Lactantius and the City of Rome”, in W.E. Klingshirn & M. Vessey edd., *The Limits of Ancient Christianity: Essays on Late Antique Thought and Culture in Honor of R.A. Markus*, Michigan: Ann Arbor, 7-25.

- Ogilvie, R.M.(1978), *The Library of Lactantiu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etzel(1996), “Natural Law and Poetic Justice : A Carneadean Debate in Cicero and Virgil”, *Classical Philology*(Vo.91, No.4), 297-319.
- 공성철(2013), 「락탄티우스의 교회사 『박해자들의 죽음들』 - 그리스도인 락탄티우스의 신관이 만든 사상과 그 배경 연구」, 『장신논단』 45(1) : 37-62.
- 공성철(2013),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죽음들』이 보여주는 신정론(Theodicy) 역사에서의 의미」, 『신학과 문화』 22 : 121-151.
- 드롭너 저, 하성수 옮김(2001), 『교부학』, 분도출판사.
- 심정훈(2018), 『인간의 본성과 정의의 원리 - 키케로의 법률론 1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협동과정 석사논문.
- 한국교부학연구회(2005), 『내가 사랑한 교부들』, 분도출판사.
- 황성환(2002), 「전환기적 시대의 라틴교부 락탄티우스」, 『성결교회와 역사』 4 : 289-309.

Abstract

Study on Lactantius' *Epitome Divinarum Institutionum*
– Focusing on the concept of *Iustitia* –

Chung Hyej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lassic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Lactantius' *Epitome Divinarum Institutionum* (“*Epitome*”) was written during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the early years of Christianity to clearly the meaning of their martyrdom and justify martyrdom. To demonstrate this, we concentrate on the concept of *Iustitia*(justice) in *Epitome*.

Lactantius draws Carneades' argument for justice to argue that persecutors are not just, and by refuting Carneades again, he argues that the Christians are just and wise at the same time. Since Lactantius' interpretation on Carneades' concept of justice(civil justice and natural justice) and his arguments are not explicitly revealed in *Epitome*, we discuss Lactantius' argument by referring to the original text of *Divinae Institutiones*. From a secular point of view, one had to choose either civil justice that is wise but unjust or natural justice that is just but unwise. Lactantius incorporates justice and wisdom by bringing in Christian values. Here we can see a Christian justice being

presented. The conclusion added to this discussion shows that the purpose of Lactantius was to encourage Christians to keep faith by justifying their suffering including martyrdom.

The concept of *Iustitia* as Christian virtue shown in *Epitome* is as follows. Human justice is a true sacrifice to God who does not need material things. Justice is the best virtue covering all virtues, and those who pursue justice and endure the hardships of life are rewarded with immortality. The two main duties at the heart of justice are reverence for God(*religio*) and love for man(*caritas*). The reverence for God is to recognize God, to fear as master, and to love as father. Love is recognizing, caring and loving human beings as brothers and sisters. The first stage of love for human beings is not to harm others(*innocentia*), and the stage of completing it is to help others(*misericordia*). Referring to the text of *Divinae Institutiones*, we find that the reverence for God is more important, and among other things it is most important to recognize God. Before practicing the virtues of *innocentia* and *misericordia*, you must first remove the vice. Vice is the tendency to use three main human emotions, anger(*ira*), lust(*avaritia, cupiditas*) and pleasure(*libido*) in the wrong direction, and to eliminate vice, three emotions must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not abused. If we look at the virtues presented as examples of *innocentia*, Lactantius has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Examples of the *misericordia* are presented similar to what become later Christian acts of charity. Another virtue included in justice is faith(*fides*), which comes first when it comes to keeping faith in God, and the virtue of chastity(*castitas*) is important in relation to keeping faith especially in marriage. Finally, humans who cannot have

complete justice need the virtue of penitence(*paenitentia*) and humility(*humilitas*).

Keywords : Lactantius, *Epitome Divinarum Institutionum*, Christianity, persecution, *iustitia*, virtue, *religio*, *caritas*

Student Number : 2009-20085